

# 극작가 김우진 재론

양승국\*

<차례>

1. 머리말
2. 김우진의 가족 관계
3. '祥星'과 '焦星'의 거리-아버지 超克의 길
4. 출가의 고통과 '봄 잔디밭'의 안식-〈산돼지〉에 이르는 길
5. 김우진 죽음의 진실
6. 결론 및 남는 문제

## 1. 머리말

1920년대 대표적인 극작가이자 연극비평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우진은 그의 생전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명되었으며, 그에 대한 연구논저도 근 50편에 이르고 있다.<sup>1)</sup> 그런 만큼 김우진은 시대를 앞서 가는 선각자의 모습으로, 또는 봉건적 인습과 질곡에 저항하는 고민적인 지식인상으로 제시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966년 이두현의 『한국신극사연구』에서 처음으로 그에 대해 언급된 지 한 세대 이상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김우진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 어

\* 울산대 교수

1) 김우진에 대한 자세한 연구사 목록은 『한국현대극작가론 1-김우진』(한국극예술학회 편, 태학사, 1996) 참조.

면 일정한 선입관 밑에서 이루어져 온 혐의가 짙다.

우선 김우진이 처한 1920년대가 완전한 연극적 불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비록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연극 환경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비단 1920년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1920년대는 아직 소설 창작이 본격화되기 전으로서, 토월회를 비롯한 신극 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었으며 연극비평 분야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시기였다. 즉, 1920년 벽두부터 제시된 윤백남의 「演劇과 社會」(『동아일보』, 1920. 5. 4~16)에 이은 현철의 일련의 연극 비평은 바야흐로 신극에서 신극으로의 전환 과정에 제기되는 이론적 대응에 손색이 없으며, 희곡 창작에 있어서도 조명희, 김정진, 김영팔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작품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럴 때 김우진의 연극 참여는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단지 유고에 기인한 그의 작업에 대한 평가는 자칫하면 논의의 중심에서 이탈하기가 쉽다.

김우진의 문필 활동은 1921년 동경 유학생 잡지 『학지광』(1921. 6)에 「所謂 近代劇에 對하여」를 발표한 것으로 시작된다. 그 이후 그가 ‘발표한’ 평론은 1926년에 집중되어 「李光洙流의 文學을 埋葬하라」(『조선지광』, 1926. 5), 「自由劇場 이야기」(『개벽』, 1926. 5), 「現代歐米劇作家論」(『시대일보』, 1926. 5. 30~6. 28), 「우리 新劇運動의 첫 길」(『조선일보』, 1926. 7. 25~8. 2), 「築地小劇場에서 人造人間을 보고」(『개벽』, 1926. 8) 등의 4편의 글이 연속적으로 발표된다. 그러니까 그의 국내 공식적인 문필 활동은 1926년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sup>2)</sup> 이 때의 필명이 ‘水山’으로 되어 있는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sup>3)</sup> 왜냐하면 그의 문필 행위가 거의 모두 ‘수산’이라는 필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호를 ‘焦屋’으로 고정시켜 ‘타오르는 별’이라

2) 물론 이보다 앞서 1922년 『중외일보』에 발표한 「朝鮮말 없는 朝鮮文壇에 一言함」도 있지만 이는 일본에서 써 보낸 수필류의 글로서 본격적인 문학관이 드러난 비평문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3) 단 「築地小劇場에서 人造人間을 보고」만은 S.K의 영문 이니셜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의 1926년 7월 1일자의 편지가 그 이유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는 의미로 그 字意를 풀이하여 김우진의 선구자 의식을 과도하게 강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희곡 창작도 마찬가지로 그의 창작 희곡 5편 중에서 그의 생애 중에 발표된 것은 <두덕이 시인의 幻滅>(『학조』, 1926. 6)과 <산돼지>(『조선지광』, 1926. 11~1927. 1) 뿐이다. 물론 이 중 <산돼지>도 엄밀히는 유고라고 하겠지만, 김우진 자신이 분명하게 발표의 의도하에 탈고한 원고로서 잡지의 편집상 사후에 발표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공식적인 문필 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 작가에 대한 연구는, 어디까지나 그가 의도적으로 발표를 위하여 창작한 작품을 통한 연구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외의 글들은 가급적이면 보조적인 자료로서만 활용되어야 하고, 일기나 편지, 기타 잡문에서의 말단의 字句에 집착하여 작가 의식을 검증하고자 하는 방법은 특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김우진 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선입관은 그의 생애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수 윤심덕과의 情死에 집착한 작가 의식에 대한 고찰은 자칫하면 그의 작품에 나타난 주제를 일방적으로 죽음 혹은 자살로 몰아가게 되는 위험에 빠지기 쉽다. 신문 사회면 기사의 선정주의에 편승하여 윤심덕과의 정사의 대상으로서의 유부남이라는 각도에서 김우진을 파악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온전한 면모는 사라지고 만다. 즉 다른 개인사적 기록은 인용하면서도 거기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윤심덕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결국 해석은 작품 자체에서 비롯되어야만 한다.

그의 생애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는 그의 가계에 대한 것이다. 그저 막연하게 ‘많은 계모와 이복 동생들’과 같은 식으로 그의 가족 관계를 언급하면서, 그에 따라 그의 작품의 주제를 선구 세대 혹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으로 안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연구 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김우진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새삼스러운 정밀 검토가 시도되어야만 하며,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록에 근거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듯, 그의 작품 <난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구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이라는 전제 하에 작품의 주제까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경향이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점에서 김우진과 부모의 관계, 즉 김우진이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 또 김우진의 모성 결핍이 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김우진의 부친 金星圭(字 寶衡, 號 草亭居士, 1863~1935)의 사후인 1937년에 그의 아들 金哲鎭과 金益鎭이 엮은 김성규의 문집 『草亭集』 12권은 김우진과 그의 가계를 이해하게 해 주는 많은 자료를 담고 있어서 위에서와 같은 김우진 연구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본고에서는 이에 따라 우선 김우진의 가족 관계를 정밀히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김우진 작품의 주제 의식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 2. 김우진의 가족 관계

『草亭集』 卷之五에는 김성규에 의해서 작성된, 조부, 부모, 그리고 처와 관련된 다수의 墓誌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에 공통되는 가족 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김우진의 증조부 金槿根(字 士雲, 號 怕知窩 또는 醉筠齋, 1791~1872)은 聞慶 錢氏와 결혼하였으나 자식이 없었고, 둘째 부인인 順興 安氏와 재혼하여 슬하에 장남 炳昱 외 5남 3녀를 두었다. 김우진의 조부 金炳昱(字 文舉, 號 磊槿, 1808~1885)은 全州 李氏와의 사이에 金豐均의 1남, 둘째 부인 安東 權氏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고, 셋째 부인 順興 安氏(1835~1888)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는데, 이 아들이 김우진의 아버지 金星圭이다. 조부에게는 이 외에도 첩으로 密陽 朴氏(?~1859)가 있었는데 훗날 김성규는 이 박씨의 제사

를 받들고 移葬을 시켜 주기까지 한다.

흔히 김우진의 회곡 <난파>에서의 ‘악귀’와 ‘신주’의 대사를 인용하여 김성규를 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오히려 <난파>에서의 서자 혹은 첩 운운하는 표현은 위의 밀양 박씨의 경우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sup> 하지만 김성규가 김병옥이 59세에 얻은 아들임을 미루어 보아 그의 異腹兄 豐均과는 年差가 많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종손인 灝鎭이 그와 비슷한 연배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이끌어 갔음을 알 수 있다.<sup>5)</sup> 이 호진이 <난파>에서의 ‘악귀’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김성규의 못마땅함은 김우진의 일기(1919. 1. 28)에 인용되어 있는 김성규의 서간의 내용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고,<sup>6)</sup> 『草亭集』의 서간 중에서도 1913년 호진에게 보낸 「答舍姪灝鎭書」에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김석근과 김병옥의 가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先考縣監府君墓誌」에 의하면 “通政大夫 敦寧府都正 諱楨根 妣贈淑夫人 聞喜錢氏 繼妣贈淑夫人 順興安氏”라고 언급되어 있는 반면, 「義母 贈淑夫人 密陽朴氏墓誌」에는 “贈淑夫人 密陽朴氏 正三品通政大夫 延豐懸監 安東后人 金公炳旻之副配”라고 되어 있어 그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작성된 「先考懸監府君墓表」에 의하면 全州 李氏는 初娶, 安東 權氏는 再娶, 順興 安氏는 又娶로 언급되고 있으며, 密陽 朴氏에 대해서는 繼配 權氏가 몸에 병이 많아 朴氏를 副室로 선택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밀양 박씨의 죽음(1859)이 김성규의 출생(1863)보다 이른 것을 보면 김우진의 조부도 사별로 인하여 4취까지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5) 연배로 보아 풍균은 일찍 사망하였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한편 김성규의 宗孫에 대한 의식은 그의 조부 김석근의 墓誌 작성(1927년)에 灝鎭의 長孫인 5대손 壽東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다. 1927년의 무렵에 김성규의 장손인 芳漢의 나이가 고작 3세인데 비하여 이미 壽東은 성인인 것으로 보아, 이 이복형제 간의 세대는 근 2세대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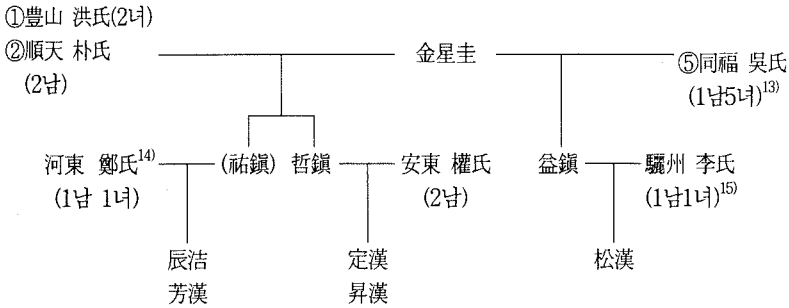
6) “父主로부터 下書하신 중 彼 꽤악무도한 灝鎭의 최근사가 기록하여 있다. 그의 性質, 稟志는 악마의 저주이다. 日後 그 자손에게 潛勢되었던 악마의 저주가 발현될 줄을 확인하고信한다. 그의 모든 죄악, 불의, 잔인, 무도는 그의 저주에 환원하리라.”



「豊山洪氏墓誌」와 「順天朴氏墓誌」에 의하면 金星圭의 첫 부인 홍씨는 1891년 사망하였고 둘째 부인 順天 朴氏는 1892년 시집을 왔다. 김성규는 모두 5 부인을 얻어<sup>9)</sup> 그 중 세 부인으로부터 3남 7녀를 낳았다. 이를 일러 그 스스로 운명이 기구하여 5취하였다고(居士賦命多奇 凡五娶而有男三女七)<sup>10)</sup>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아 김성규는 사별을 거듭하여 다섯 부인까지를 얻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11)</sup> 따라서 김우진 가계의 복잡한 가족 관계가 흔히 생각하듯 봉건 잔재의 有妻蓄妾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김성규의 가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3. 김우진의 부 金星圭의 가계도(1934년 현재)<sup>12)</sup>



9) 이러한 점에서 <난파>에 등장하는 제1~제4 계모는 자신의 가족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10) 「亡室淑夫人順天朴氏墓誌」, 『草亭集』 卷之五.

11) 1929년 작성된 '祥星合名會社定款'에 의하면 墳墓의 재산을 규정하는 가운데 “淑夫人海州崔氏墳墓”가 언급되고 있다. 이 해주 최씨가 김성규의 3妻 또는 4妻일 가능성이 높다.

12) 「草亭居士墓自誌」, 『草亭集』 卷之五 참조.

13) 吳氏로부터 5녀를 낳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1927년의 기록에서부터 김성규 스스로 슬하에 3남 7녀를 두었다는 것으로 보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넷째 부인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슬하에 자식이 없었을 것이다.

14) 經學院 講士 鄭鳳鉉의 딸로 鄭点孝다. 기존의 연구서들에는 이 부녀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

15) 김우진의 생존시에는 아직 자식이 없었다.

김우진의 형제 3남 7녀중 1921년 이전에 이미 세 딸은 시집을 갔고(첫째와 둘째딸은 異腹 누나가 된다), 1926년 정월 이전에는 넷째 딸도 출가를 한다.<sup>16)</sup> 따라서 그가 사망할 당시 그의 형제는 결혼한 두 남동생(同腹弟와 異腹弟)과 출가하지 않은 異腹 여동생 3명이 있었고, 1남 1녀의 자식과 사내 조카 2명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김우진이 복잡한 가족 관계 하에서 대가족 운영을 책임져야만 하는 질식할 정도의 봉건적 억압에 처해 있었다는 점은 쉽게 속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어디까지나 그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와 부자 관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만 알 수 있을 것이다.

### 3. '祥星'과 '焦星'의 거리 -아비 超克의 길

김성규는 어떠한 사람인가. 지금까지의 김우진에 대한 연구 중에서 그의 부친인 김성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언급한 것은 거의 없다. 단지 김종철의 지적<sup>17)</sup>만이 비교적 자세하게 김성규의 개혁 사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가 서자인 점을 들어 그가 전근대적인 가족 제도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단정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그가 서자인 점은 김우진의 희곡 <난파>를 제외하면 그 외의 어떠한 언급에도 나타나지 않는다.<sup>18)</sup>

16) 1926년 정월에 작성된 「順興安氏墓誌」에 의하면 넷째 딸은 羅州의 林炳泰에게 출가하였다.

17) 「산태지」 연구, 『한국현대대극작가론 1-김우진』, 한국극예술학회 편, 태학사, 1996.

18) 김종철이 인용한 소운거사의 『한말비사』에 나타나는 金中鎭이란 인물은 그의 가계에는 실재하지 않는다. 淸陰相公 後孫에 金中鎭은 木浦 金星圭의 所謂嫡長姪이다. 그 庶叔 金星圭가 全南에 屈指하는 富豪임으로 自己의 貧困을 感할 때마다 自己 庶叔의 富裕한 것을 猜忌하여 其祖先의 墳墓를 掘毀하여 曰 此山의 地理는 다만 庶派를 富裕케 하고 嫡孫은 餓死케 하니 墓將焉用고 하는 無理悖孫으로 有名하다

김우진이 언급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내 처자도 다 잊었다. 더구나 芳漢이는 그리웁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는 第二義的이다. 그만큼 내 속에는 어찌할 수 없는 내 생명이 뛰놀고 있다. 흥, 아버지 같은 이는 ‘文學의 中毒’이라고 하겠지. 중독도 좋아. 내게는 이것만이 제일 아닌가. 나 같은 것은 아버지 같은 정력 있는 천재와는 인연이 멀다. 이렇게 인연이 먼 사이에 부자가 된 것이 숙명이지. 그렇지만 할 수 있니? 나는 내 속 생활의 힘이 있다. 이것만이 문제거러다. 알겠니?<sup>19)</sup>

김성규는 일찍부터 그 부친으로부터 학문을 배웠으며, 그 후 17세에는 서울에 유학하여 김씨 문중인 金昇圭家에 머물면서 신학문을 배웠다. 김성규는 그의 만여 권의 장서를 이용하면서 礪溪, 茶山 등의 실학을 계승하여 특히 田制와 量田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와 함께 數理와 曆象의 연구에도 힘썼는데, 특히 수리의 수준이 높아, 미국인 魯越이나 일본인 堀本禮造와는 ‘互相困難’ 할 정도까지 되어 ‘以算術推爲通國第一’이라고까지 일컬어지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신구학을 종합하여 內治, 外交, 用兵, 理財의 학문에 힘써 1887년 25세 되는 해에 礦務局 主事로 근무하는 것을 시작으로, 駐紮 英·德·俄·義·法의 5개국 全權大使의 書記官, 親軍統衙營文案, 尙衣院主簿, 高敞懸監, 長城郡守, 全羅南道量務監理, 務安港監理, 그리고 마지막으로 江原道巡察使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바로 이렇게 『草亭集』에서 김성규의 학문과 활동에 대하여 세세하게 언급한 사람이 바로 김우진이다.<sup>20)</sup> 따라서 위와 같이 아버지를 ‘정력 있는 천재’라고 규정한 것이 김우진으로서는 전혀 과장이 아닌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는데……’ 김성규의 嫡庶 여부를 떠나 그의 長姪은 金灝鎭이고 金中鎭이란 이름은 그의 從姪 이내의 가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19) 「아 프로테스토」, 『김우진 전집』 2, 전예원, 1983. 215면.(이하 『전집』으로 약칭)

20) 「草心亭實紀」, 『草亭集』 卷之十二. 이 기록은 1918년 음력 7월에 작성되었다. 이 밖의 김성규의 농업개혁론에 대해서는 金容燮, 「光武改革期の 量務監理 金星圭의 社會改革論」, 『韓國近代農業史研究』, 一潮閣, 1990. 참조.

김우진의 희곡 <난파>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母 잘 아시는구료. (詩人을 부르며) 네 아버지 말 좀 들어 보렴.

父 그렇소. 아들이, 내 가슴 속을 알아다우. 나는 忠君報國도 못한 죄인인데 어  
머니에게 철천지한을 머금게 한 불효자로구나. 충군보국, 요새 말로 사회  
봉사할 有爲之人은 너 외에 오늘 사회 다른 청년들 중에서두 또는 우리  
자손 중에서두 있겠지만 오늘 너는 내 아들 위한 머금은 내 할머니의 손  
자가 아니니?

神主 아들이. 손자야. 너희들은 다만 아들 노릇 손자 노릇이 첫 義務다.

母 예구, 시어머니두! 아냐요, 詩人이 먼저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 아버지  
는 당신 아들은 단지 남보다 더한 정력 재능 천재 통찰력을 가지고 사나운  
風雨 속을 걸어 온 旅客과 같이 험상스러운 풀 무서운 풀 흉악한 풀을 지  
내어 온 成功事에 불과하지 않소? 菅葛의 才操와 奈巴倫의 힘과 伯夷叔齊  
의 清廉을 가진 選手에 불과하지 않소? 그러나 모든 약속 밑에 나온 저  
애야말로 이 爭鬪의 장본인이외다.<sup>21)</sup>

여기에서 母의 입으로 말해지는 父에 대한 언급은 김우진 자신의 아버지  
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김우진에 의하면 김성규는 일찍이 그의  
부친으로부터 經史를 배운 뒤 “국정이 이미 문란하고 민심이 소란하여 개  
연히 管葛[관중과 제갈량]의 사업에 뜻을 두고, 문필가들의 이론은 헛된 생각  
이므로 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속된 사람들의 시문은 짓  
기를 좋아하지 않았다”<sup>22)</sup>고 전해진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김우진의 부친에 대한 평가는 부정의 대상이  
기보다는 극복의 대상이었다는 편이 더 타당하다. 이와 함께 김성규가 단  
지 보수적인 사고 방식만 지니지 않았음은 그의 학문적 편력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전해 준 다음과 같은 편지에서 잘 드러난다.

21) 『전집』 2, 72면.

22) 國政已紊 民心思亂 家君慨然有意於管葛之事業 以爲操觚者之理論空想 無補於時局  
不喜作俗士詩文, 『草心亭實紀』, 『草亭集』 卷之十二, 四.

우리 부자는 보통 부자에 비하면 특수한 관계라 아니할 수 없다. 나는 晩生 獨子로서 □□□□하여 평생의 뜻을 민국에 펼치지 못했다.

다만 오늘 이후의 일은 너희들의 뜻을 건설하게 하는데 근본을 두고 邪說에 미혹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졸업 후에 東洋四千年史 및 東洋宗敎家學說 등을 서로 절충하여 自覺 自立한 연후에 내가 눈감고 돌아갈 수 있겠노라.<sup>23)</sup>

김우진은 출가를 선언하는 글 「아 프로테스토」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언급한다.

「네 아버지가 그리도 미우냐.」

「限量없이 밋다. 그러나 존경은 한다. 그렇기 때문에 平時에 내가 아버지 말을 거역한 일이 한 번이나 있었니? 다만 熊本서 문과대학으로 갈 때, 辰浩이 衣裳問題를 내 맘대로 우겨 정했을 때, 또 이번 내 出家, 그 세 경우 외에는 나는 충실한 아들 노릇, 순한 남의 집 자제 노릇을 해 왔다. 그러나 나는 내가 奇人이란 것은 내 속 생활이 외부의 아무것도 관계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안다는 것보다는 나는 참을 수 없이 내 속 생활의 힘에 뛰놀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미루어 볼 때 김우진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애증이 뒤섞여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감정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미움의 까닭은 무엇일까. 비록 김우진이 문과 대학을 선택할 때 그의 부친이 반대하였지만 이는 父情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스스로가 실학의 신학을 선택하여 사회 개혁에 힘쓴 바 있고, 이를 이루지 못하는 세상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알고는 단지 가업의 증진에만 힘을 쏟고 있는 만년의 부친으로서, 세상에 실익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 문학 대신에 다른 학문을 권장하였음에 틀림이 없다. 아마도 그의 부친은 특히 그의 가업과 관계되는 학문을 전공하도록 권유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부친이 그에게 강요하였음직한 가업이란 어떤 성격의 것

23) 1922. 12. 4의 일기. 『전집』 2, 290면.

이었을까. 그리고 이에 반하는 김우진의 ‘반역의 선언’<sup>24)</sup>은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우진이 대학을 졸업하고 목포로 귀향하여 기업인 ‘祥星合名會社’를 경영한 것으로 알려진 1924년 이후의 생활의 의미를 점검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자면 이 기간 중의 김우진의 생활이 가장 배일에 쌓여 있는 셈이 된다. 외형적으로는 습작과 연구의 시기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실생활의 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오히려 빈약하다. 그의 일기조차도 이 시기의 기록은 지극히 소략하다.

먼저 ‘祥星合名會社’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1929년 10월 1일자로 처음 작성된 이 회사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 第一章 總則

第一條 當會社는 創祖 金星圭가 上으로 先世深恩을 報하고 下으로 子孫 繁榮을 圖하는 主旨에서 出하여 各會社員의 持分인 全財産을 分與함으로 因하여 成立함이나 各社員된 人은 勿論어니와 社員의 衆子衆孫 乃至 永遠한 苗裔까지 祖先의 覆載生成한 至心血誠을 勿忘하여 互相간 同心 協力하여 祖恩을 報하고 後孫을 榮케 함으로 益益前進하고 猥히 會社 解散 其他 退社 等 宗中 不利益함을 招한 等 行爲가 有케함이 不可한 事

第二條 各會社員은 前條에 揭한 創祖의 主旨랄 貫徹하기 爲하여 當會社 所有財産 以外에 在한 左記한 墳墓 及 其附屬財産 又は 家垵 園林 及 其附屬財産을 永久 保護함을 第一義務로 할 事<sup>25)</sup>

이를 보면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은 김성규의 재산을 고루 나누는 기금<sup>26)</sup>을 바탕으로 하여 전 종중이 골고루 번영을 누리자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4) 「아 프로테스트」, 『전집』 2, 215면.

25) 「祥星會社定款」, 『草亭集』 卷之三, 二十五.

26) 정관 14조에 의하면 김성규와 김방한, 김철진, 김익진이 각각 5만원씩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第十條 當會社는 左의 事業을 經營함으로써 目的을

- 一 土地 其他 不動産의 買入
- 二 土地의 經營及 賣買
- 三 農業 林業 蠶業 及 此에 付帶한 事業
- 四 農業 林業 蠶業의 産物 製造 及 販賣
- 五 金錢 貸付
- 六 前記 各號에 關한 一切 業務<sup>27)</sup>

이에 따르면 '상성합명회사'의 주된 사업은 부동산 투자와 농업, 임업, 잠업과 관계된 사업, 그리고 사채업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열거된 사업은 생산, 판매, 서비스업까지를 담당하는 오늘날의 종합 상사의 기능을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토지에 대한 사업이 선두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김성규의 경력에서 보듯, 그의 토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 회사의 특이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원의 상속 조항에 있어서이다.

第三十三條 本會社의 社員은 全部 男子에 限하며 代代로 各個 持分의 其 相續人된 者도 男子에 限하여 繼承케 할 事

第三十四條 當會社의 社員 各個의 持分에 屬한 出資金은 當該社員의 家督相續人에 限하여 代代 相續으로 호더 萬若 家督 相續人의 品行이 左記 各號中의 一該當한 犯行이 有하여 家業을 持續할 餘望이 無한 場合에난 親族會議의 決議를 經하여 當會社社員中 一人이나 推定 相續人으로 나서는 法定 代理人을 定하여 所轄裁判所에 登記한 後에 社員의 業務를 代行케 할 事

但 家督의 宗統身位난 固定 不動으로 하여 利益 配當은 他社員과 同一

27) 『草亭集』 卷之三, 二十八.

히 受케 囑<sup>28)</sup>

이러한 점에서 이 회사가 지닌 ‘합명회사’적인 성격 이상의 공동체적 목적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면모는 제10장 사원의 會議, 11장 임원 및 사무 처리 등 거의 모든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정관은 1933년에 개정되고 이와 함께 1934년 김성규의 미리 작성한 유언서에 의거 ‘報恩社’가 조직된다. 이 보은사는 김우진의 아들 김방한을 대종가로 하여 草亭派라는 새로운 종파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설립된 상호부조의 재단이다. 정관 제2조의 1항에 따르면, 현재 壽東을 종손으로 한 김병욱의 제사는 儒教正禮에 따라 壽東의 死後, 즉 5세 親盡 후에는 끝나고, 그 祭主 될 최고 行列者가 초정파의 자손이므로 ‘草亭派 報恩廟’를 창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보은사의 존립 기간은 영구적이며, 그 자금은 김성규가 증여한 전라남도 무안군, 장성군 소재 부동산의 평가액 10만원으로써 근거하도록 하고 있다. 사원은 김성규의 자손인 남자들이 출생 동시에 자동 회원이 되는데 정관의 마지막에 기재된 창립 회원은 다음과 같다.

昭和九年七月七日(甲戌舊五月二十六日)

朝鮮全羅南道木浦府北橋洞四十六番地

草亭金氏宗中財團報恩社

設立者 創祖(七十二歲翁)

草亭居士 金星圭

社員 大宗孫 金芳漢

右親權者實母 鄭点孝

社員 次男 金哲鎭

社員 參男 金益鎭

社員 孫 金定漢

28) 『草亭集』卷之三, 三十一.

社員 孫 金昇漢

右二人親權者父 金哲鎭

社員 孫 金松漢

右親權者實父 金益鎭<sup>29)</sup>

김우진이 생존해 있었으면 당연히 대종손의 자리에는 아들 김방한 대신 그가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그의 일기 곳곳에서 토로하고 있었던 봉건제의 억압이 실상은 이러한 ‘상성합명회사’나 ‘보은사’와 같은 구체적 인 공동체 조직이었는데도 모른다. 아마도 김우진 생존시에는 ‘상성합명회사’는 있지 않았거나, 있더라도 실체를 완전히 갖추기 전인 김성규 개인 사업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김우진이 학업을 마치고 귀향하였을 때 김성규가 이러한 자신의 사업을 만아들에게 계승시키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소망이었을 것이다.

일찍이 김우진에게 편지를 보내 灑鎭의 종손으로서의悖惡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성규는 종손만 존중하는 유교적 유습에 분개하였지만 이제는 그 자신이 새로운 宗祖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 된다. 아마도 김우진은 이를 미리 알아차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정관을 보면 회사는 어디까지나 鄉約과 관계있는 공동체적 조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아마도 김성규가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이루지 못하였던 개혁 사업의 축소판일 것이다. 이렇게 김성규는 농민 통제의 기구로서 성립한 향약에다 서양 사상을 도입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회 개혁을 시도하면서도, 이 기구를 중심으로 한 정신 무장으로서의 유교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30)</sup>. 아마도 이러한 이중성을 김우진이 일찍부터 알아차렸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김우진은 이러한 아버지의 세계를 극복하고자 몸부림친다.

이렇게 자신을 종조로 초정과의 번성을 기원한 명칭인 ‘祥星’의 의미에 비해 ‘焦星’의 의미는 다분히 역설적이다. 일찍이 이두현이 니이체의 <짜라

29) 『草亭集』 卷之三, 四十七.

30) 김용섭, 앞의 책, 162면.

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의 머리말에서 태양을 가리키는 ‘불타는 별’의 의미로 지은 것이라고 ‘초성’의 의미를 규정<sup>31)</sup>한 이래 이 自號는 김우진의 선구자적 반항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접두사격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하여 그 자신이 더 애용한 ‘水山’이란 자호보다도 후세의 연구자들은 이 ‘초성’을 즐겨 거론하면서 김우진 연구에 대한 말문을 열었던 것이다.

그러나 字意에 비추어 볼 때, ‘焦星’이란 ‘불타는 별’의 의미로 사용되기 어렵다. ‘焦’는 ‘불에 그을리다’, ‘검게 태우다’, ‘애태우다’의 의미로서 ‘焦星’은 ‘타버린 별’ 또는 ‘애태우는 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자호가 1921년 와세다대학 영문학과 시절에 『학지광』에 발표한 「所謂 近代劇에 對하여」에 한번 사용되었을 뿐, 그 자신은 주로 ‘水山’이란 호를 사용하여 문필 활동을 한 것을 보면,<sup>32)</sup> 이 ‘焦星’의 의미는 ‘애태우는 별’ 정도의 의미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sup>33)</sup>

그러나 그 정확한 字意보다는 그러한 호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바로 아버지 金星圭와 관계있을 것이라는 점이 더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우진이 그의 부친을 ‘정력적인 천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지만, 그가 서술한 부친의 傳記에 아버지와 ‘별’과의 관계가 상징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주목된다. 그것은 김성규의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꿈 꾸는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의 할머니가 꿈꾸시기를 큰 천둥과 번개가 쳐서 천지가 캄캄하더니 이윽고 하늘 가운데가 갈라지며 영롱한 구름이 번쩍이더니 긴 무지개가 드리워져 다리를 이루었다. 홀연히 한 어린 仙人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다릿가에 서더니 나의 할머니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공경을 표시하였으니 참으로 기이한 조짐

31) 李杜鉉, 『韓國新劇史研究』, 서울대출판부, 1966. 110면.

32) 조명희에게 보낸 편지의 말미의 서명도 모두 ‘水山’으로 기재되어 있다.

33) 김우진이 죽은 후 『조선일보』(1926. 8. 8)의 기사에, 윤심덕이 김우진에게 편지를 할 때 ‘목포 우편국 사서함 제3호 金星’의 앞으로 보냈다는 내용이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때 초성의 의미 역시 ‘애태우는 별’의 의미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었다. 분만할 즈음 내 증조할아버지 영릉참봉 석근께서 꿈에 해변에 이르러 주옥과 금은 등의 무수한 보물이 물 속에서 떠오르고 그 중 새로 만든 은저울 한 개에 별점이 빛나는 것을 보고 그것들을 다 주워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아버지의 이름을 星圭라 하고 자를 寶衡이라 하였는데 이는 그 꿈을 따른 것이다.<sup>34)</sup>

그 이름의 연원에서 보듯 김우진의 아버지는 밝게 빛나는 별이었다. 김우진의 젊은 시절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별빛에 이끌려 인생의 방향을 정하였고, 그 스스로 이 별빛을 향해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1915년 3월 7일 熊本에서 그의 再從兄 宗鎭<sup>35)</sup>에게 보낸 김우진의 편지의 일부를 보자.

拜啓春之女神이 正出하사 우리 사람이 장차 健康하고 萬物이 春의 威力에 復活코자 할 때가 되었스니 兄主께서난 如何히 消光하십잇가 就先月十二日 出發時에 慌忙한 事情에 基因되야 約束의 葉書通知도 되지 못하였스니 海容하시기 願합니다. 德澤으로써 去月十四日 午前四時에 無事히 當地에 到着하야 只今은 農學校 教師 河原生一先生宅에 宿泊하고 잇습니다. (...중략...)

아 兄主여 決코 在木中에 父主로부터 드르신 農의 말삼을 勿忘하고 身死하기 까지 意識할 것으로 하여 責任이 重大하다 하시오 나난 三年間 彼の 農學校에서 奮闘할 터이지오마난 나의 業을 卒하고 歸國할 時에 兄主가 農을 崇하난 幾許의 經歷이 顯著하면 나난 이갓치 깃부게 兄主의 身上에 對하야 奉賀할 터이올시다 나난 單히 兄主에게 以上の 事랄 申述하야 兄主의 心を 幾分이라도 助코자 함을 생각하고 此片紙랄 書하나이다 아마 兄主께서난 如斯한 것을 보실재난 조치 못한 마암이 들 터이지오 그러나 反省하시고 愚弟의 言을 聽流치 勿하시

34) 『草心亭實紀』, 『草亭集』 卷之十二, 三. “我祖妣夢 大雷雨霹靂 天地晦冥 俄而中天分開 彩雲閃爍 長虹下垂成橋 忽有年少仙人 從天而下 至橋頭停立 向我祖妣鞠躬致敬 誠異兆也 臨媿 我曾祖考寧陵參奉公諱槓根 夢至海邊 見珠玉金銀等無數珍寶自水中出來 中有新造銀衡一個 星點晃朗 因盡拾而歸 其後名家君以星圭 字家君以寶衡 從夢事也”

35) 金炳是의 차남 賢圭의 3남이다. 그러니까 김우진과는 6촌간이 된다.

오<sup>36)</sup>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사 일을 싫어하는 재종형에게 보낸 위와 같은 서신을 보면, 서신의 거의 전부가 농업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을 수 있다. 비록 형을 위한 배려라고 할지라도 위의 내용만으로도 김우진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잘 따랐을 뿐만 아니라 마음 속으로도 그 주장에 깊이 공감하였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우거진 푸른 풀 나날이 새로운데	芳草萋萋日日新
남의 돌아가고픈 마음 움직여 봄을 건디기 어렵네	動人歸思不勝春
고향은 여기에서 어언 삼천리	鄉關此去三千里
밤 꿈에서나 고향집 늙은 아버님을 뵈네	夜夢高堂謁老親 <sup>37)</sup>

이 漢詩는 김우진이 1917년 2월 초(음력), 熊本농업학교 재학시에 봄을 맞으면서 아버지에게 지어 보낸 것이다. 김성규는 이 시를 친구들과 나누어 읽으며 次韻하여 더불어 시를 지었는데<sup>38)</sup> 그 중 김성규가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36) 「祐鎮在熊本答宗鎮書」, 『草亭集』 卷之四.

37) 『草亭集』 卷之二 三.

38) 이 시 중에는 김우진의 장인 雲藍 鄭鳳鉉의 것도 있다. 鄭雲藍은 1918년 10월 25일 사망하였는데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김성규가 시를 지었다. 이를 보면 이들 사돈 간은 매우 친한 친구 사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운람은 죽기 며칠 전(10월 16일) 김우진에게 주는 시를 남겼는데 다음과 같다.(『草亭集』 卷之二, 六)

맑은 가을 목포항에서 만나지 못했는데	清秋木港未相逢
일찍이 배를 타고 큰 바다 동쪽으로 떠 갔네	浪泊曾浮鉅海東
늙으신 그대 아버지께서 응당 경계함이 있겠지만	白首尊公應賜戒
본디 완고한 늙은 장인이 또 충정을 피하네	素頑老丈又謀忠
매번 현준한 나의 사위를 생각하네만	每思賢俊吾嬌客
혹시 쇠퇴한 그대의 장인을 기억할는지?	倘記衰頽爾婦翁
이러한 가운데 서신이 끊어짐을 이상히 여기지 말게	休怪此中書信斷
산 속의 집이라 우체국이 멀어 참으로 통하기 어렵네	山家郵遠正難通

이생에서 자식 사랑함이 늙어 더욱 새로운데	此生舐戀老猶新
서로 떨어져 세 번 봄 맞는 것을 어찌 견딜 수 있으랴	怎耐相離三度春
몸조심하고 공부에 힘쓰는 것	能衛其生能篤課
이것이 늙은 애비 위로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야	是爲慰悅白頭親 <sup>39)</sup>

熊本농업학교에서 세 번째의 봄을 맞으며 보낸 김우진의 시를 읽으면서 김성규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학문을 독려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렇듯 김우진은 당연히 아버지에게는 착하고 믿음직한 아들이었던 것이다.

1918년 7월 김성규는 세 아들을 대동하고 聞慶의 德統里 성묘 가는 길<sup>40)</sup>에 尙州에 있는 枕亭泉에 들러 契會에 참여한다. 이 때 정자의 板上韻을 따서 시를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물 북쪽의 새 정자는 돌 샘을 베고 있는데	水北新亭枕石泉
아득히 나는 듯한 기와 조각이 하늘에 비치네	飛甍縹緲映雲天
맑은 개울 십리에는 가을 달이 많고	清溪十里多秋月
옛 성곽의 수많은 집에는 가을 연기 다하였네	古郭千家盡夕烟
모임은 마치 늙은이를 기다린 듯하고	會似耆英人有待
움김은 마치 승지를 가려 끝이 없는 듯하네	移如擇勝地無邊
매번 아이들을 데리고 용강의 길을 가니	携兒每向瀧岡路
올라와 보는 것이 지금부터 또 몇 년이런가	登覽從今又幾年 <sup>41)</sup>

이에 김우진은 운을 받아 다음과 같이 지었다.

향기를 옮겨 와 샘을 베었으니	移香而枕泉
------------------	-------

39) 『草亭集』 卷之二, 三.

40) 아마 김우진의 조부 金炳昱의 성묘길일 것이다. 조부의 묘와 조모 전주 이씨의 묘는 나란히 덕통리에 안치되어 있다.

41) 『草亭集』 卷之二, 五.

흥함과 폐함이 혹시 하늘에 말미암음인지	興廢倘由天
가득한 술잔에 좋은 날을 만났고	盛酌逢佳日
여행 길 지팡이는 저문 연기를 좇네	旅筇趁暮煙
상산[상주의 옛 지명]은 변함 없이 푸르고	商山靑不變
낙동강은 끝없이 흘러가네	洛水去無邊
소매를 받들어 더욱 공경을 더하니	奉袂更加敬
이변의 놀이는 영원히 기억되리	茲遊記永年 <sup>42)</sup>

이렇게 아버지와 주고 받는 한시는 김성규의 아들 중에서는 김우진의 것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1934년 김성규 스스로가 문집 편찬을 위한 원고 정리를 하면서<sup>43)</sup> 남겨 놓은 이러한 김우진의 글은 바로 김우진 부자간의 의사 소통의 맥락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러한 부자간의 詩會는 김우진이 와세다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919년 7월 김우진이 김성규의 시의 운자를 따서 지은 다음과 같은 시에는 그의 학문의 자세가 잘 담겨 있어 주목된다.

십 년 동안 큰 우산을 메고 무슨 공을 이루었는가?	擔簷十載爲何功
책상을 마주하고 침음하니 생각은 끝이 없네	對案沉吟思不窮
효자의 눈물 속에 겨울 죽순이 푸르고 <sup>44)</sup>	孝子淚中冬筍綠
의인의 마음에는 칼 부딪히는 꽃이 붉었다	義人心上劔花紅
삼교의 말씀은 원래부터 다른 취향이요	三教立言元異趣
오대주의 다른 민족은 갈지 않은 풍속이라	五洲別族不同風
홍모와 태산은 경중이 나누어지니	鴻毛泰嶽分輕重
진정한 영웅은 중용의 도리를 지킴에 있네	眞正英雄在執中 <sup>45)</sup>

42) 『草亭集』 卷之二, 三.

43) 『草亭居士墓自誌』, 『草亭集』 卷之五, 九.

44) 삼국시대 뒷나라의 孟宗이 겨울날 숲 속에서 그의 어머니가 즐기는 죽순이 없음을 哀嘆하자 홀연히 눈 속에서 죽순이 솟아 나왔다고 한다.

45) 『草亭集』 卷之二, 七.

부친의 뜻을 어기고 문과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효자와 의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서양 문학을 공부하겠다는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이 시가 김성규의 문집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비록 그의 부친이 김우진의 문과 대학 지원을 반대하긴 하였어도, 그것은 그 때뿐으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김우진의 앞길을 제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6)</sup>

1922년 하기 방학을 맞아 김우진은 동생 두 명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華川에 있는 華陽亭에 올라 김성규의 시의 운을 따라 각각 시를 지었는데 김우진의 시는 이렇다.

새들은 맑은 하늘을 회롱하며 절벽에서 날고	鳥弄晴雲翔絕壁
고기들은 낙조에 번득거리며 푸른 물에서 뛰노네	魚翻落照躍清灣
십년 동안 책을 짊어져서 무엇을 이루었나	十年負笈成何事
공연히 어버이만 늙어서도 한가롭지 못하게 하였네	空使吾親老未閒 <sup>47)</sup>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어겨가면서 문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갈등은 아버지와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신념과, 그를 위한 학문의 수행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심리적 갈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성규는 아들이 이왕에 선택한 공부를 인정하고 오히려 더욱 큰 공부로써 자신이 못다한 충군보국의 과업을 이행해 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아마도 김우진의 갈등은 문학과 연극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던 데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1922년 12월 3일의 다음의 일기에서 그 심정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父主下書, 三度習讀  
오, 가련한 인생,

46) 1925년 이후에 작성된 墓誌마다 그의 아우 哲鎭이 ‘前 孝德殿 典衛 法學士’라고 호칭되는 것과 함께 김우진의 이름 앞에는 항상 ‘文學士’라는 칭호가 붙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김성규는 아들의 학문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7) 『草亭集』 卷之二, 十六.

舊傳統의 유물의 신생에 대한 恐怖야말로 불쌍하다, 피육의 생이여.

옛것, 현 것, 다 삭은 것이 어찌 이같이 새로운 조류의 앞에는 形骸가 없어  
지도록 脅威를 면치 못하는 중인가?

呵呵

그러나 오, 내게 과연 힘이 있을까. 이 과거의 餘灰를 대항할 만한 힘이  
있을까. 나는 몸을 떨며 가슴이 내려 앉는다. 오 내게 힘이 있나! 불쌍하기는  
한 — 개인적 운명과 다투어 승리를 얻었으나 이 時運의 不利로 신의 협위를  
받는 父主! 이 전통에 저항할 그 힘과 무기를 내가 아닌 가진 것은 아니다. 그  
러나 父主라는 情愛, 비극의 hero에 대한 相情을 克勝할 만한 힘이 내게 있나!

오, 의심컨대, 나야말로 Hamlet가 아닌가.

The time is one of joint!라 부르짖을 만한 비극의 모태를 내가 가졌으면 어  
찌하나.

오, 힘이여, 힘이여. 내게 힘을 주소서. 신이여. 이 외에 이 힘 외에, 다시 무  
슨 것을 내가 바라리까, 신이여! 오.<sup>48)</sup>

세 번씩이나 아버지의 편지를 거듭 읽고 그는 아버지에 대한 愛憎에 괴  
로워하며 신으로부터 힘을 구한다. 이렇듯 그에게 아버지는 부정의 대상이  
기보다는 극복의 대상이었으며, 그 자신 아버지를 부정해야 하는 비정함에  
괴로워하기보다는 아버지를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  
문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만큼 가슴 여리고 착한 아들이었다.<sup>49)</sup>

48) 『전집』 2, 290면.

49) 1923년 5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 기록된 그의 일기를 보라. 여기에는 위독한 아버  
지를 문병 온 자식의 효성스런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아들  
김방한이 “아버님께서는 조부님께 대한 효성이 지극했다고 한다”(『金祐鎭의 로멘  
틱한 最後』, 『세대』 87, 1970. 10. 352면)라고 표현한 것이 전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4. 출가의 고통과 ‘봄 잔디밭’의 인식

##### - <산퇴지>에 이르는 길

2년 정도의 목포에서의 생활 동안 김우진은 희곡 습작을 하고 평론들을 지상에 발표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행위는 어디까지나 시골 한 구석 주변부에서의 ‘ひにく’(빈정거림)<sup>50)</sup>에 지나지 않는다. 그 스스로 목포에서 문학 동인회 ‘Société Mai’를 만들고 주도하기도 하였지만, 서울의 문단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로 그의 능력 부족보다도 기질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김우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소위 원만 융통한 사람이 아니며, 사교적이 아닌 나는 한번 받은 생의 효용을 나의 성격과 개성에 기본하여야 한다. 다행히 나에게서 사물을 직시하며 그是非를 판단할 만한 통찰력과 이지가 있다. 또 그 시비에 기본하여 소신을 강행할 만한 편벽이라 이를 만한 剛毅性이 있다. 이것은 즉 타협을 의미치 아니하며, 파괴와 반항을 의미한다. 이같이 비사교적인 나는 이지와의 의지의 힘으로 살아야만 하겠다. 즉 圓滿具足이라는, 실상은 타협에 불과한 衆愚가 가득한 이 사회 생활에 불과하다.

가정이나, 사교나, 계급이나, 물론 誰何하고 타협이 아니면 평화와 미소를 얻지 못하는 이 현존제도는 나에게 반항과 혁명을 요구한다. 성격에 뿌리박은 이 individualist에게!<sup>51)</sup>

이러한 김우진의 성격은 허영적 생활과 도시를 좋아하지 않는<sup>52)</sup> 그의 시골 기질과도 관련된다. 일찍이 熊本農業學校에 진학하기 위하여 여장을

50) 이 표현이 <두덕이 시인의 환멸>과 <난파>에 자주나움을 상기하자.

51) 1923. 7. 2. 일기, 『전집』 2, 293면.

52) “나도 안다. 세상에서 恒用 青年, 소위 知識階級の 부르조아 사이들 모양으로 설렁 설렁 어리대는 그 눈꼴 신, 그 더러운, 그 허영적인, 그 위선적인 생활을 아니 하도록 권고해 준 것도 너였던 것을 나는 고맙게 알고 있다.”(『出家』, 『전집』 2, 195면)

폰 뒤 그의 재종형 宗鎭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當市[熊本-인용자]난 人口가 六萬에 超過하고 市内 到處에 輕便鐵道가 敷設  
되야 있고 歷史가 有한 熊本城內에 第六師團司令部 所在地로서 舊蹟名勝한 곳  
도 頗多합니다. 市内의 町街의 繁榮한 事난 말할 것도 업시 木浦에 較하여 大  
勝하온 바 入學生으로써 墮落케 하야 浮華虛滅케 하난 事도 頗易하압내다 나의  
平生 생각에 都會난 대단히 不嗜하며 義明百姓의 住하난 農村의 田畝가 좋습  
이다.<sup>53)</sup>

그러나 이러한 전원 취향의 기질이 安分知足의 유가의 덕목과는 거리가  
뻗은 강력히 표출되는 그의 창작의 욕구로 잘 알 수 있다. 즉, 그저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성적 지혜를 근거로 하는 비평적 행위에 머물기에는  
그의 ‘용기’와 ‘생활력’<sup>54)</sup>이 그를 가만 놓아 두지 않았다. 이 때 그 스스로  
이러한 창작의 열망을 ‘생명력’으로 간주하였고, 문학 창작을 ‘속 생활’의  
결정<sup>55)</sup>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이를 위하여 ‘출가’를 선택한다. 과연 출가  
를 하여야만 이러한 창작이 가능한 것인가. 김우진 스스로는 출가만이 ‘속  
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는 힘으로 알았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스스  
로 ‘奇人’으로 규정한다. 결국 이것이 바로 김우진의 비극이 된다.

자아간의 대화체로 쓰여진 「아 프로테스토」는 이러한 출가의 선언으로  
서, 이 글에는 출가를 선택한 김우진의 고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53) 『草亭集』 卷之四, 十六.

54) 김우진은 자기 자신을 ‘黎明에 서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현대의 조선을 짊어질  
용기[생활력]와 새로운 광명의 세계로 들어갈 만한 지혜[이성]를 갈구한다.(1922.  
11. 20. 일기 참조)

55) “그러나 내 창작품에 대해서는 내 속생활의 결정이란 뜻으로 보수를 바라오.”(1926.  
7. 1. 조명희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이 일기에서 김우진은 다른 글은 원고료를 안  
바라도 창작품만큼은 다르다고 한다. 이를 보아도 그가 문학 창작을 각별하게 간  
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네 아버지가 그리도 미우냐.」

「限量없이 밋다. 그러나 존경은 한다. 그렇기 때문에 平時에 내가 아버지 말을 거역한 일이 한 번이나 있었니? 다만 熊本서 문과대학으로 갈 때, 辰浩이 衣裳問題를 내 맘대로 우겨 정했을 때, 또 이번 내 出家, 그 세 경우 외에는 나는 충실한 아들 노릇, 순한 남의 집 자제 노릇을 해 왔다. 그러나 나는 내가 奇人이란 것은 내 속생활이 외부의 아무것도 관계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안다는 것보다는 나는 참을 수 없이 내 속 생활의 힘에 뛰놀고 있다.」

「그 속 생활이란 것이 무엇이냐? 대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게 물어 보렴. 더구나 너 같은 平凡生活에만 눈이 번한 자는 모른다. 내가 내 생활밖에 모르는 것과 같이.」

「너의 집 재산, 너의 가족과도 日後에 끊겠니? 영구히.」

「아무렴. 영구히 끊겠다. 단언한다.」<sup>56)</sup>

김우진은 ‘속 생활’대로 살기 위하여 출가를 결심한다. 그것은 곧 재산과 가족과의 절연을 의미하며 ‘영구히’ 아버지까지도 잊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출가의 선언 중에는 유난히 ‘영구히’라는 단어가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출가의 결심이 강함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만큼 출가가 힘들고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은연중 드러내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와 타협을 하여서라도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본능까지도 생겨난다.

「잔소리 마라! 나 같은 奇人, 바보에게는 다 소용없는 것이다. 너 같은 소위 훌륭한 자제에게는 그것만이 제일이겠지만.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벼락이 닥쳐 온대도 내 생활, 내 속 생활만이 제일이다. 모든 것을 내 버린 뒤가 아니냐.」

「다시 한 번 네 집으로 가서 그 같은 내 속 생활을 잘 이해하도록 네 아버지께 말해라. 네 아버지 만한 이해력 있는 이는 알아 듣고 너의 주위에 不幸을 주는 일 없이 너의 소위 ‘속 살림’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이다.」

「안 된다. 이해만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은 인습 없이 살지 못하는 것이 아

56) 『전집』 2, 214면.

닐까. 이해할 가능성보다도 인습의 고집이 더 센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는 아버지도 안 보련다.»<sup>57)</sup>

어쩌면 이해력 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속 살림’을 위해 힘써 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이 없지 않으나, 문제는 결국 김우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창작이란 누가 허락하고 말고가 아닌 자기 자신의 내적 욕구의 표현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김우진은 그러한 창작의 행위로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마 이것만이 ‘아버지의 돈으로 살아온’<sup>58)</sup> 30세가 되는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sup>59)</sup> 김우진의 고통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김우진은 그의 나이 30세가 되는 해 출가를 감행한다.

김우진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조명희의 시집 『봄 잔디밭 위에서』의 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우진은 그 중 『봄 잔디밭 위에서』를 자신있게 조선 신시인의 작품 중의 걸작<sup>60)</sup>이라고 규정하며, 그 이유로

57) 『전집』 2, 215면.

58) 「출가」, 『전집』 2, 197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버지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는 점이 김우진의 한 고통이 되었을 수도 있다. ‘상성합명회사’ 정관에 의하면 그 구성원이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며, 단지 기본적인 생활비와 약간의 배당금만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59) 아마도 이 점이 김성규의 자식관일수도 있다. 김우진은 그의 동생 김철진과 함께 아버지 앞에 30세까지는 금주, 금연하겠다는 맹세를 한 바 있고(“父主께서 春秋三十까지 酒草를 不近하사스니 余等도 平生에 酒草를 不近하되 三十歲 以內에난 더욱 謹愼하야 飲酒吸草를 切勿하기로 誓約호시 金祐鎭 金哲鎭”, 『草亭集』, 卷之五, 二十), ‘상성합명회사정관’에 의하면 김우진의 아들 김방한에 대하여 “當會社는 大宗家의 大宗孫을 特別 尊重, 保護, 培養하는 責任을 負擔하야 現在 大宗孫 金芳漢을 專門以上 學校까지 進學 卒業케 하고 其年이 滿三十歲에 達하기 前에는 學識과 手腕이 優越할지라도 大宗家와 宗中과 報恩社와 當會社 此四者의 財政 處理에 關한 重大한 實權을 附與치 말고 當會社의 書記等의 職務를 擔當케 하야 事務處理及其他에 關한 見習을 充分히 함을 要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성규가 그의 중종의 번영을 위하여 특히 종손에게는 권리보다 책무를 강조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60) 1926. 8. 1. 편지.

내용과 형식의 완전한 일치이자, 철학과 음악의 조화가 이루어진 까닭을 들었다.<sup>61)</sup> 김우진은 출가를 감행한 직후 이 시를 근거로 하여 희곡 <산돼지>를 창작한다.

조명희의 시 「봄 잔디밭 위에서」의 전문은 이렇다.

내가 이 잔디밭 우에 뛰노닐 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 모양을 보아 주실 수 없을까.  
어린 아기가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 어리광함같이  
내가 이 잔디밭 우에 짓등글 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 모양을 참으로 보아 주실 수 없을까.

미칠 듯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엄마! 엄마!」 소리를 내었더니  
땅이 「우에!」하고 하늘이 「우애!」하오매  
어느 것이 나의 어머니인지 알 수 없어라.<sup>62)</sup>

평범한 낭만주의 시풍의 이 시가 왜 김우진에게는 ‘걸작’이며 희곡 창작의 모태가 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는 잠시 김우진의 가정사와 그의 여성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우진의 부친 김성규는 1888년 香港에 출장을 가 있던 관계로 어머니 順興 安氏의 임종(1888. 9. 27)을 지키지 못한다. 이것이 그에게는 평생 한으로 남아 1896년 12월 高敞懸監에 재직시 慶北 聞慶에 있던 어머니의 묘를 全南 長城郡 北三面 龍岡里에 이장한 후 1897년 8월 어머니 묘가 마주 보이는 위치에 ‘草心亭’을 짓고 그곳에 옮겨 살면서 侍墓를 한다. 이 때부터 원래의 호 雲賓을 ‘草亭居士(혹은 그냥 草亭)’로 바꾸어 부르고 1905년부터는 모든 관직을 멀리하고 초심정에서 살게 된다. ‘초심’이란 명칭은 唐詩 “慈

61) 1924. 5. 23일자 소인의 편지.

62) 『조명희 선집』, 1959. 25면.

母手中線 遊子身上衣 臨行密密縫 但恐遲遲歸 難將寸草心 報得三春暉”에서 따온 것으로 이는 곧 효성을 다 못한 김성규의 작은 정성을 뜻하는 의미이다.<sup>63)</sup> 김우진은 바로 이 초심정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자랐으며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 본 것도 바로 이 초심정에서였다.

1920년 7월 김우진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순천에 있는 어머니의 묘소에 봉영한다. 그것을 그는 “과거와 미래도 없는 현재의 가득 찬 기쁨에 잠김이다”<sup>64)</sup>라고 표현하면서 5년전 꿈 속의 어머니를 노래했던 지극한 그리움을 다시금 떠올리고 있다. 1915년 19세 때 그는 이렇게 시를 썼다.

유학의 몸이 된 때가 있어  
꿈은 고향으로 달려가건만  
꿈의 원천인 어머니를 위해선  
어떤 꽃을 가지게 할까  
늙으신 아버지는 어디에  
아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sup>65)</sup>

꿈의 원천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그러나, 추억으로 남을 만한 그 무엇 하나 대신, 단지 깊게 각인된 傷痕만을 남겨 놓았을 뿐이다.

1922년 9월 24일(음 8월 4일)은 김우진의 어머니 順天 朴氏의 忌日(1901. 8. 4)로서 그날 밤 김우진은 故人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난 여름 ‘초심정’에 있을 때를 회상하고 있다.

63) 이상의 내용은 「草亭居士自誌」와 「草心亭實紀」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연은 김우진의 회곡 <난파>에도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

64) 1920. 7. 29. 일기, 『전집』 2, 277면.

65) 『전집』 2, 274면. 이 시는 원래 日文으로 창작된 것으로 『전집』 1(223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위 시의 마지막행 앞에 ‘안식의 집 기둥을 세워 드릴까(安息の屋根を建つべき)’의 행이 더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위 시의 대구가 자연스러워진다.

(……) 나는 유년 시대의 기억의 대개는 잊었으나, 이 舊鄉의 江心을 대할 때 우연한 기회에 이전에는 망각의 속에 있던 것이 회상될 때가 많다. 지금도 그것이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

익진이와 이야기하던 끝 이같이 물었다.

“아니나요. 당최 모르겠어요. 다만 기억나는 것은 저기 저 강변에 어머니 상여가 지나가는 것을 아무 철없이 이쪽에 서서 촌 아해들과 같이 웃으며 바라보는 것뿐이야요.”

나는 그때 우연한 비감이 흉리에 충일하여짐을 깨달았다. 그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面顔에 注流하였다. 夕香의 空氣는 부드럽고 바람은 개었으나, 나의 기억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집중되었다. 한 점의 사랑을 받지 못한(그렇게 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얼굴 기억도 없는 그에게 이같이 無極한 愛母의 정이 깊다. 나는 흐르는 눈물 얼굴을 숙였다. 강물은 여전히 희롱하며 흐른다.

“그러지 말어! 또 아버지 보시면 공연히 언짢게 아시는데.”

소모주는 비련한 소리로 위로하여 주었다.<sup>66)</sup>

익진의 어머니 同福 吳氏와의 주고 받는 대화 중에 김우진은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고 만다. 그의 나이 26세의 일이다. 여기에는, 결혼하여 이미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성인’의 나이에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야 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러나 아버지를 언짢게 할까 봐 겉으로 내색조차 쉽지 않은 김우진의 상처의 깊이가 솔직하게 드러나 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단지 行喪의 순간밖에 남지 않았고, 그마저 그 의미도 모른 채 웃으며 지켜 보았던 그 철없음에 대한 회한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는, 다음과 같이 그 일화가 <난파>에 두 번 씩이나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異腹弟 난 힘도 물도 양분도 없어요.

66) 『전집』 2, 287면. 이 날짜의 일기로 전집에 ‘常心亭’과 ‘□□亭’으로 되어 있는 단어는 ‘草心亭’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詩人 (냉정하게) 그게 무슨 소리니? 힘이나 양분이 나는 없다고 하자. 그래두 어머니의 사랑이 있지 않니? 맹목적이라고 하지 마라. 사랑에서 힘이 나온다. 사랑은 맹목적이라구 값없는 것이 아니다.

異腹弟 난 그렇지만 형님 모양으로 희생할 수가 없어요.

詩人 글세 네게는 희생이니 무엇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이것 봐라 나는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있다. 언제 여름인가, 어머니 생각하고 강가에 앉아서 운 일 있지?

異腹弟 저녁 때 옛 고향 강가 언덕 위에 앉아서.

詩人 손은 물에다가 집어 넣고.

異腹弟 먼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詩人 어머니 기억이란 다만 喪輿 떠나는 광경만.

異腹弟 그게 여섯 살 때 아니요? 그런데 왜 그 얼굴은 기억 못해요?

詩人 (아픈 소리로) 놓고 제일 미워하든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기억에 드니?

異腹弟 (알아채린 듯이) 아 어머니의 사랑! 67)

카로노메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언제 처음 보았소?

詩人 지각없이 경충거리는 강아지 모양으로 강물에다가 침지질하고 놀 때, 강변가로 어머니 喪輿 지나가는 것을 구경거리로 보았을 때, 모든 운명의 첫 길이 강변가 나 혼자 앉은 앞으로 열리게 되었을 때, 하하하 (졸지에 크게)

카로노메 당신 어머니가 밭습니다. 잡아 들고 짹짹 줄기를 내어 고랑에다가 집어 던질 만큼 밭습니다.68)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그리움은 겉으로는 증오의 감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작품 곳곳에서 김우진 자신에 대한 자학적인 심상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김우진 희곡에 나타나는 증오의 표현은 역설적으로 읽어야 한다.69)

67) 『전집』 1, 81면.

68) 『전집』 1, 87면.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경우가 여성 혐오의 감정이다. 1901년 그의 나이 5살 때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 이후 계속하여 세 계모의 슬하에서 자라난 김우진으로서는 연속되는 어머니들의 죽음을 통해 여자란 단지 자식을 낳기 위하여 존재하는 종족 번성의 희생양으로 여겼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상성합명회사'의 정관을 통해서 김성규의 '초정파'의 번성에 대한 희망이 지대하였음을 잘 알 수 있는데, 아마도 김우진은 이를 위해서 희생된 어머니들의 죽음을 지켜 보면서 여성 혐오의 싹을 키워 갔을 것이다. 그것은 “生殖에 能하고 頭骨에 缺乏한 女子여!”<sup>70)</sup>라는 구절에서 극단적으로 표현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김우진은 일부일처제의 선봉자(1919. 1. 30. 일기)이며, 재혼불가론자(1919. 2. 3. 일기)인 것이다.<sup>71)</sup> 결국 이러한 여성 혐오 역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역설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봄 잔디밭 위에서」를 상기하여 보자. 이제 비로소, 어머니에 대한 '미칠 듯한 마음'에 잔디밭 위에서 덩굴며 “엄마!, 엄마!” 소리를 내었더니, 그 메아리가 하늘과 땅에 가득하여 어느 것이 나의 어머니인지 모르겠다는, 이 동요적인 발상의 시가 왜 유독 김우진에게는 조선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혔는지 짐작할 수 있다. 김우진 스스로가 1925년 6월의 시점에서 1922년 1월까지의 시를 'romanticism의 시대의 시'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이후 특히 1926년에 이르러 더욱 더 낭만주의적인 정조에 빠지게 되는 것도 이러한 「봄 잔디밭 위에서」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김우진은 이 시를 제재로 하여 희곡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후 다음과 같은 자작 시를 남기고 있다.

69) <난파>에서 제1막의 시작의 대사가 “아들아, 내가 너를 낳고 제일 미워하는 아들아”인 것과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의 “너를 낳고 제일 미워하던 어머니다. 오 아들!”의 대사를 상기해 보라.

70) <두더기 시인의 幻滅>, 『전집』 1, 96면.

71) 이러한 점에서 그의 희곡의 주제를 '자유연애'라고 규정하는 것은 일면적인 고찰일 수 있다. 이런 견해야말로 윤심덕과의 '情死'라는 선정주의로 인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상실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무제(無題) · II

당신 생각이 날 때  
방한(芳漢)이 안고 올라와요  
당신이 한번 잊고 있던  
잔디 위에 앉아서

오호! 봄이 좋구려,  
아지랑이, 땀비, 먼 곳 닦우는 소리,  
봄이외다. 봄이구려 봄,  
탈탈 뛰는 방한(芳漢)이  
포동포동한 흰 손목을 잡을 때  
졸지에 내 사지는 떨렸습니다.  
이상스럽게도  
생각키는 며칠 후 떼 밀.

아, 고만듭시다,  
봄이오, 봄이오, 봄,  
피리소리까지 들려오는구려.<sup>72)</sup>

다분히 「봄 잔디밭 위에서」의 이미지를 차용한 이 시에서 김우진은 매우 드물게 자신의 직계 가족을 언급하고 있다. 아마도 아내를 떠올린 듯한 이러한 시상의 전개 과정 속에서, 스스로 부질 없는 짓으로 ‘아, 고만듭시다’라고 말문을 막고 마는 표현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가족애의 깊이와 아픔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가족애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 김우진의 야심찬 창작 희곡이 바로 <산돼지>이다. 조명희에게 보낸 김우진의 편지 내용을 종합하자면 그가 조명희의 시 「봄 잔디밭 위에서」를 처음 접한 것은 1924년 5

72) 『전집』 1, 207면.

월이고, 이를 제재로 하여 희곡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1926년 4월이다. 그러나 정작 집필을 시작한 것은 출가를 감행하여 동경에 체류하고 있던 1926년 6월말로서 이로부터 1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 작품을 완성한다.

그는 이 작품의 완성 후에 다음과 같이 조명희에게 편지를 보낸다.

일간 안녕하시오?

나로서는 자신있게 처음으로 쓴 희곡 3막을 끝내고는 제일 먼저 형에게 말하오. 기꺼워 해 주시오. 오후부터 곧 정서하기 시작해 곧 형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말이 불완전한 곳을 赤書로 옆에다가 써서 도로 보내주시기 바라오. 그런 뒤에 가서 형에게 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형의 <봄 잔디밭 위에서>를 인용했고, 또 이것이 나로서는 자신있게 인용한 줄 믿고 있으.<sup>73)</sup>

처음에는 제목을 <봄 잔디밭 위에서>라고 붙였을 정도로<sup>74)</sup> 조명희의 시에 강력한 영감을 받은 희곡 <산돼지>는 위의 편지로 보아 김우진이 자신을 갖고 창작한 첫 희곡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문맥에 따르자면, 결국 그 전의 모든 작품은 습작에 지나지 않게 된다.

김우진의 마지막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산돼지>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다.

일간 어떠시오? 수일전 2회의 편지 보셨습니까? 희곡 <산돼지> 3막 지금 별봉 엽서로 송부했아오니 받으시기든 곧 회답해 주시오. 과백의 정정에 대해 형이 보시고 말 서투른 곳이 있으면 정정해 주시오. 그러나 그 과백의 호흡에 치명상이 아니되어야 하오. 이 호흡이 치명상이 될 염려가 있으면 불완전하거나 서투른 과백이라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시오. 그리고 정정하신 후 나에게

73) 1926. 7. 12. 편지, 『전집』 2, 242면.

74) “<봄 잔디밭 위에서>는 2, 3일 전부터 쓰기 시작합니다.”(1926. 7. 1. 편지)라는 구절과 “1926년 7월 12일 <봄 잔디밭 위에서> 3막 끝내고 水山”이라는 위의 편지 끝의 서명으로 보아 이를 알 수 있다.

회송할 것 없이 그대로 잡지사에 주시오. 저번에도 말했지만 적어도 한 막은 한 호에 다 내야 합니다. 이 희곡은 내가 (자신이 아니라) 포부를 가지고 쓴 최초의 것이요. 주인공 元奉이는 추상적인 인물이요. 조선 현대 청년 중의 어떤 성격과 생명력을 추상해 본 것이요. 그 성격에는 형도 일부분 들고, 김□진 군도 (이야기 들은 대로) 일부분 들 것 같소이다. 선을 굵게, 힘있게, 素書로 쓰기를 애썼습니다. 이 까닭은 철저한 자연주의극은 우리의 오늘 내부의 생명의 리듬과 같지 아니함외이다. 그래서 이 3막 전편의 리듬의 굵은 선의 진행이 이렇게 대강 되었습니다.<sup>75)</sup>

이 내용만큼 자신의 창작품에 관하여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김우진의 글은 없다. 그런데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 작품을 탈고하자마자 쓴 편지에서의 ‘자신있게’라는 표현이 이 편지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포부를 가지고’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탈고의 흥분에서 벗어나 퇴고를 거듭한 뒤의 신중한 표현이라 할 것인데 이를 통해 그만큼 김우진이 이 작품에 대하여 들인 정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호흡과 표현에도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성을 들인 희곡의 제목이 ‘봄 잔디밭 위에서’에서 ‘산돼지’로 바뀐 만큼, 이 두 모티프가 희곡 <산돼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모티프는 둘다 가족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 중 ‘봄 잔디밭 위에서’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즉 ‘모성 결핍’의 모티프와 관계 있음은 이미 보인 바와 같다.

<산돼지>가 한국현대희곡사상 최초로 동학을 취급하고 있는 작품임은 일찍부터 주목받은<sup>76)</sup> 바 있으며, 김우진의 가족사, 특히 동학과 그의 아버지 김성규와의 관련성도 그 동안 간간이 언급되어 왔다.

김성규는 1894년 동학혁명을 맞아 高敞懸監으로 임명되며, 전라감영의 總書로서 전라감사 金鶴鎭을 도와 정부와 농민군 사이의 중재역을 담당하

75) 1926. 8. 1. 편지, 『전집』 2, 243~244면.

76) 김현·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2.

고 자신의 개혁의지를 실천하기도 하였다.<sup>77)</sup> 이러한 점에서 김성규는 개혁적인 인물로서 반봉건적 사상을 지니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급진적인 개혁에는 반대하고<sup>78)</sup>, 김개남을 체포하는 데에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그의 처형시에는 감독관이 되기도 한 이중적 삶을 산 인물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농민군들에게 체포당하였다가 뇌물을 주고 풀려나기도 한 기구한 사연을 지니고 있었다.<sup>79)</sup>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김우진이 작품 속의 가족사와 관련하여 동학을 수용하게 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김우진의 편지(1926. 7. 9)에 의하자면 그는 조명희에게 『개벽』 4월호의 동학 관계 기사를 급히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요새 집필 중인 3막극에 불가불 급히 소용이 있으니 구해서 급히”<sup>80)</sup> 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작품 속에 동학을 수용하고자 한 것은 작품 창작 과정 속에서 추후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처음부터 동학과 주인공 원봉의 운명을 결부시키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은 동학이 ‘산돼지 탈’이라는 최원봉의 운명의 억압 기제로 상징화되어 있을 뿐, 작품 주제의 핵심과는 전혀 연결되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렇게 된 근본적 이유로는 김우진이 동학을 자신의 父意識을 표출하는 계기로만 과도하게 사용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77) 이이화, 『발굴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137면.

78) 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研究』, 142면.

79) 김개남 등의 횡포가 심하자 단독으로 이를 나무라려 농민군영에 들어갔다가 도리어 체포당하였으나, 쓰고 있던 안경을 守職에게 주고 풀려날 수 있었다. 겨우 도망친 그는 天燈山の 普光庵에 20여일을 숨어 있다가 가족들을 문경으로 보낸 후 사잇길로 상경하다가 公州에 이르러 全南慰撫使兼巡察使 李道宰(이 사람이 김학진의 뒤를 이은 전라감사가 된다)를 만나게 된다. 그리하여 高敞懸監兼慰撫使從事官으로서 다시 전주에 돌아와 김개남 체포에 앞장서게 된다. 그 이후 김성규는 자신의 가족을 다시 고창감영으로 불러 오게 된다.(이러한 점에서, 동학의 여파로 김우진의 가족이 목포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간혹의 언급들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상은 『草心亭實紀』, 『草亭集』 卷之十二, 八 참조)

80) 『전집』 2, 242면.

다음과 같은 최원봉의 대사에서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

최원봉 (….) 나는 어머니만큼이나 아버지도 원망이요, 아버지도! 자기는 동학(東學)인가 무엇에 들어 가지고 나라를 위해, 중생을 위해, 백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죽었다지만 결국은 집안에다가 산돼지 한 마리 가두어 놓고 만 셈이야 반백이 된 머리털이 핏줄기 선 부릅뜬 눈 위에 허트러져 가지고 이를 악물고서는 대드는구려. “이놈 네가 내 뜻을 받아 양반놈들 탐관오리들 썩어가는 선비놈들 모도 잡아 죽이고 내 평생 소원이든 내 원수를 갚지 않으면…… 호호호호, 산돼지 탈을 벗겨주지 않겠다.”고…… 저승에 들어가서라도 그 산돼지 탈이 벗어지지 않게 얼굴에다가 못박아 두겠다고 대어들면서 부젓가락 만한 왜פות에다가 주먹 만한 철퇴(鐵槌)를 가지고 댄 베틀하는구려. 아버지 뜻을 받아 사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원수 갚고 반역하라고 가리쳐 주면서도 산돼지를 못난이만 뒤끓는 집안에다가 몰아 넣고 잡아 매어 두는구려. 울 안에다가 집어 넣고 구정물도 변변히 주지 않으면서, 호호호호! 산돼지 산돼지 산돼지! 호호호호! 자, 이 산돼지 얼굴 좀 들여다 보구려.81)

이렇게 최원봉의 입으로 묘사되는 아버지의 성격은 “너희들 졸업후에 東洋四千年史 및 東洋宗敎家學說 등을 서로 절충하여 自覺自立한 연후에 내가 눈감고 돌아갈 수 있겠노라.”(1922. 12. 4. 일기)라고 한 김성규의 모습이다. 이와 함께 “아버지 뜻을 받아 사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원수 갚고 반역하”도록 되어 있는 최원봉은, 부친의 뜻을 이어 ‘평생의 뜻을 민국에 펼’쳐야만 하는 김우진 자신의 모습이다. 김우진에게 있어서 그 길은 ‘속생명’대로 사는 길이자 문학 창작의 길로서, 산돼지처럼 ‘반항의 독기’(1924. 11. 29. 일기)로 사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시골 한 구석 ‘못난이만 뒤끓는 집안’에서 그러한 ‘생명력’을 억압받으며 살게끔 되어 있는 모순적인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 속의 주인공은 조명희의 시 「봄 잔디밭 위에서」를 통해서 비로소 안식을 찾게 된다.

81) 『전집』 1, 28면.

2막의 몽환의 장면이 지나간 후 초록빛 연한 잔디밭 위에서 최영순과 최원봉은 번갈아가며 시를 외운다. 이렇게 시를 외우면서 전개되는 3막의 장면은 따라서 갈등이 없고 화해와 희망만이 가득할 뿐이다. 이렇듯 동학의 개혁 정신을 운명의 과제로 받아들인 최원봉이 「봄 잔디밭 위에서」를 외우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필연적이지 못하다는 점,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작품은 여전히 작가의 심정적인 자의식 표출에 머물고 마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는 <두덕이 시인의 환멸>이나 <난파>에서 보여 주었던 작가 의식의 직접적 노출이 객관화되고 상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작품들을 한 단계 뛰어넘는 성숙성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작가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산돼지>는 ‘우리의 오늘 내부 생명의 리듬’과 조화되는 극 형식으로 모색된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비록 작가의 말대로 연출자와 무대 조건의 면에서 공연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김우진의 실질적인 창작의 출발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이 작품이 결국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고 말았다는 점은 한국현대희곡사의 큰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 5. 김우진 죽음의 진실

1926년 8월 5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의 머릿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지난 삼일 오후 열한 시에 하관(下關)을 떠나 부산(釜山)으로 향한 관부연락선 덕수환(德壽丸)이 사일 오전 네시 경에 대마도(對馬島) 엽홀 지날 지음에 양장을 한 여자 한 명과 중년 신사 한 명이 서로 껴안고 갑판으로 돌연히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였는데 즉시 배를 멈추고 부근을 수색하였으나 그 중적을 찾지 못하였스며 그 선객 명부에는 남자는 전남 목포부 북교동(全南 木浦府 北橋

洞) 김수산(金水山)(三〇), 녀자는 경성부(京城府) 서대문당(西大門町) 이명목 일백칠십삼번디 윤수선(尹水仙)(三〇)이라 하였스나 그것은 본명이 아니요, 남자는 김우진(金祐鎭)이요, 녀자는 윤심덕(尹心德)이었으며, 유품으로는 윤심덕의 돈 지갑에 현금 일백 사십 원과 장식품이 잇섯고 김우진의 것으로는 현금 이십 원과 금시계가 드러 잇섯는데 연락선에서 조선 사람이 정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더라.(부산연보)

관부연락선에서의 최초의 조선인 情死, 이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기사거리인가. 그만큼 이 사건은 당시의 모든 신문에 대서 특필되고 이어 그에 관한 기획기사가 매일 연재될 정도로<sup>82)</sup>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이 ‘윤·김의 정사 사건’의 개괄은 신문사에 따라 약간씩 달리 보도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는 그 통신원에 따라 달라지는 듯하다. 즉 『조선일보』의 보도는 『동아일보』와 거의 동일하지만, 『매일신보』와 『京城日報』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는 달리, 공통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흥미를 끈다.

『매일신보』는 같은 날 ‘聲樂家 尹心惠孃 情夫와 玄海에 投身情死’라는 제호를 달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관부연락선 제철편 삼일 오후 열한 시 하관을 떠난 덕수환(德壽丸)이 사일 오전 네시 경 대마도(對馬島) 압 해상을 지내일 때에 순시하던 급사가 일등 선실 삼호실의 방문이 열린 채로 잇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선객이 선관 우호로 산보를 나아 왔는가 하고 우선 선실을 드러다보니 뜻밖게 가방우에는 「보이」에게 라는 편지가 노혔슴으로 즉시 봉을 뚫고 내용을 보니 「대단히 미안하나 이 유언서를 본적지에 부쳐 주시오」라는 간단한 편지와 사례를 뜻하는 오원 지폐 한 장—에 원적지로 가는 유서가 한 장이 낫하였다. 그 때에 선원들은 소동을 일으켜 선객 명부를 조사하니 그 유언서를 쓴 사람은 전라남도 목포부 북교동(全羅南道 北橋洞) 사십륙 번지 김수산(金水山)(三〇)이라는 남자와 경성에

82) 『동아일보』, 1926. 8. 7~14, 『조선일보』, 1926. 8. 7~13, 『매일신보』, 1926. 8. 8~

본적을 둔 윤수선(尹水仙)(三一)이라는 여자인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두 사람은 사실 오전 두시경 서로 끼고 현해탄에 투신 자살을 한 모양인데 윤수선이라는 녀자는 녀류 성악가 윤심덕 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로 판명되고 마랐다.

이러한 두 가지의 기사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은 김우진과 윤심덕이 자살하는 것을 과연 본 사람이 있느냐는 것과 유서의 실재 여부이다. 『조선일보』의 기획 기사 「樂團의 女王 尹心惠의 半生」(5)(1926. 8. 10)에서는 8월 5일자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4일 새벽 4시경 배가 대마도 옆을 지날 때쯤 선실의 방문이 열려 있어 가방을 발견하였을 뿐, 투신하는 것을 본 사람은 없다'로 수정하여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위의 『매일신보』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이에 따르자면 결국 김우진과 윤심덕이 몇 시에 어느 해상에서 투신하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동아일보』의 8월 5일자의 기사에 크게 의지하여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윤심덕과 '서로 껴안고' 투신하였다는 식으로 김우진의 죽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 기사의 선정주의에 편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서의 실재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동아일보』의 첫 날 기사(1926. 8. 5)에 의하자면 유서는 두 가지가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선장에게 자신들의 行具는 모두 없애 달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들의 가족에게 남긴 것인데 이는 지금 부산서에서 보관중이라고 하고 있다. 이 중 '보이에게'의 형식으로 남긴 글의 존재는 여러 기사에 공통되지만,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의 내용은 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sup>83)</sup>

『매일신보』(1926. 8. 9)에는 “김우진씨에게는 적어도 유서 한 장쯤은 잇을 것이나 아즉껏 이러타는 소식을 듯지 못하였스나 죽음을 영원히 비밀에 부치고저 함이었던가?”라는 식으로 유서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고 있다.

83) 이두현에 의하면 김우진이 그의 아우 益鎭에게 '이 여자의 사랑 앞에는 만사가 사라졌다', '자녀의 교육은 내가 책임져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나, 이 역시 객관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이두현, 『한국신극사연구』, 113면)

『조선일보』에서는 8월 7일 김우진의 동생 金哲鎭을 집으로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그의 반응을 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저는 이번에 었더타 형언할 수 업는 급극한 비보(悲報)를 듯고 부산까지 갔다가 오늘 낮차에야 도라왔소이다. 형님의 투신한 곳은 관부간(關釜間)의 정중(正中)이읍디다. 그런 즉 그 시태(屍體)를 수색하야 찾고저 한 것은 절망이올시다. 그런데 사형의 이번 사실에 대하여 사회에서 단편덕으로 그의 리성(理性)을 해부(解剖)하야 공지(公紙)에 발표하였는데 각 신문지에 발표된 사실은 그의 가족의 견해(見解)와는 큰 차이(差異)가 잇습니다. 사형의 생전에 써 노흔 유고(遺稿)와 그이 친우에게 준 유서(遺書)가 잇스닛가 수일 후에 발표하겠습디다. 현장의 유서가 경찰의 손에 들었다 함은 랑설이올시다. 저는 이에 대하여 털더히 도사하야 세상의 오해가 업도록 이를 발표하려 합니다.

이러한 김철진의 발언에 의하자면 김우진이 그의 가족에게 남긴 유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위에서의 친우는 조명희를 지칭하는 것일텐데, 이 때 유서란 아마도 조명희에게 보낸 편지를 의미하는 것이지<sup>84)</sup> 일반적인 의미처럼 죽음을 전하는 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조명희는 김우진의 사후 1주기를 맞아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김우진의 유서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昨年 八月 四일에 水山이 죽었다. 그가 죽은 뒤에 세상에서는 그이 죽음과 그의 生前일에 對하야 멋대로 짓거리고 멋대로 判斷을 내렸다. 더구나 無根한 事實을 함부로 誇張하야 내어 논 新聞 雜誌의 記事란 것은 참아 볼 수가 업슬 만

84) 『동아일보』(1926. 8. 5)에서는 8월 3일 조명희가 받은 김우진의 편지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이는 ‘군게 먹은 자신의 결심을 변할 수 없다. 가정에서의 비인간적인 생활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 내용은 김우진이 7월 30일 보낸 편지의 내용 일부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동경에서 서울까지 편지 도착 기간이 대략 4일 정도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김우진이 8월 1일에 쓴 자신의 마지막 편지는 8월 5일 현재 조명희에게 도착하지 않은 셈이 된다.

하얏섰다.

그런 지도 밧서 죽은 지 一暮年이나 되었다. 그러컨만 나는 이때껏 그의 일에 對하여 줄곳 沈默만 직혀 왔섰다. 그것은 그가 죽을 그 때에는 나의 생각과 感情이 몹시 錯亂도 하고 變化도 자갓슴으로 쉽사리 얼는 말하기가 실엇던 까답이오. 그 뒤에는 때가 지나고 보니 뒤늦게 말하기도 어중 뒤엇던 까답이다.

새삼스러운 말이다마는 그는 왜 죽었나? 나는 그의 죽음이란 일에 이르러는 말하지 안켓다. 세상 사람 判斷 그대로 맞겨 두란다. 또는 그의 生前일에 對하여 세사에서 떠도는 올곳지 안은 風說도-히 다 辨明할 까답이 업다고 생각한다.<sup>85)</sup>

이러한 조명희의 언급에 의하면, 그 동안의 풍문에 대하여 그가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때의 ‘風說’이란 곧 윤심덕과의 艷聞을 의미하는 것임은 상식일 터이다. 이는 결국 위의 金哲鎭의 언급과도 상통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조명희는 그의 죽음을 ‘情死’로는 파악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우진이 남긴 글 『아 프로테스토』의 말미에는 ‘1926. 6. 9. 서울에서’라는 서명이 부기되어 있다. 그런 한편 1926년 5월 11일에 조명희에게 쓴 그의 편지에는 “서울 올라가기는 기약치 못하겠습니까만”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그런데 조명희의 윗 글(『金水山君을 懷함』)에는 작년 5월 그믐께 전보가 와서 자신이 정거장으로 마중을 가서 김우진을 만나 여관에 같이 간 것으로 되어 있고, 조명희에게 보낸 6월 29일의 김우진 편지를 통해서도 그가 이미 동경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우진이 동경으로 떠난 것은 적어도 6월 9일 밤에서 28일 사이가 된다.<sup>86)</sup>

윤심덕은 미국 유학을 떠나는 동생 尹聖德과 함께 7월 16일 서울을 출

85) 『金水山君을 懷함』, 『朝鮮之光』, 1927. 9. 64면.

86) 그런데 당시의 『동아일보』에는 6월 10일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김우진이 서울에 와서 윤심덕을 만나서 하루에도 몇 번씩 情死하자는 요구를 하였으며, 윤심덕이 권고하여 그가 동경에 간 것은 7월 9일(또는 7월 초순)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를 보면 당시의 대표적인 신문인 『동아일보』가 얼마나 추측에 의한 선정적인 보도를 선호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발하여 大阪으로 향하였다. 그녀는 大阪의 '日東蓄音機會社'에서 레코드 취입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혼자 동경으로 떠난다. 그 날씨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녀는 8월 1일 혼자 동경에서 大阪으로 돌아와 다시 녹음을 하는데, 이 때의 윤심덕의 행동이 매우 이상하였다고 한다.<sup>87)</sup> 즉, 동경에 가기 전에는 탄생의 기쁨을 위시한 수종의 기쁨의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 때는 예정에 없던 '死의讚美'를 고집하여 취입한 것과, 이 때의 노래가 너무도 처절하여 주위에서 듣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였던 것이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김우진이 大阪에 와서 윤심덕을 다시 만난다. 그들은 大阪에서 하루를 묵은 다음 새벽 下關으로 향한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윤심덕이 동경에서 김우진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과 왜 그렇게 그들이 서둘러서 윤성덕의 미국행도 송별하지 않고<sup>88)</sup> 서둘러서 귀국선 德壽丸을 탔겠느냐 하는 점이다.

윤심덕은 大阪에 도착하여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 나는 대판(大阪)서 27, 8일 쯤 동경(東京)으로 가겠소이다. 동경 가서 자미가 '깨' 쏘다지듯 하면 두어 달 놀고 오고…… 나는 어디 가든지 밥은 사 먹는 사람이닛가 말이지요. 디구상 어디에서든지 자미만 잇스면 오래 머물겡소이다. (...)<sup>89)</sup>

이 편지대로라면 윤심덕은 大阪에 도착하였을 때만 해도 동경에서 제법 재미있게 보내려는 즐거운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그녀가 서울을 떠날 때 여러 선물과 좋은 피아노를 사 가지고 돌아올 궁

87) 『조선일보』, 1926. 8. 9.

88) 윤성덕은 미국 유학의 조건인 장학생 확인서를 집에 두고 와서 그것을 다시 받아 8월 5일 떠날 예정이었다.

89) 『동아일보』, 1926. 8. 5.

리를 하였다는 가족들의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윤심덕은 3, 4일 만에 大阪으로 돌아왔으며, 김우진도 그녀를 찾아 大阪으로 간다.

김우진이 남긴 1926년 8월 1일의 마지막 편지를 보자.

이 희곡은 내가 (자신이 아니라) 포부를 가지고 쓴 최초의 것이요. 주인공 元奉이는 추상적인 인물이요. 조선 현대 청년 중의 어떤 성격과 생명력을 추상해 본 것이요. 그 성격에는 형도 일부분 들고, 김□진 군도 (이야기 들은 대로) 일부분 들 것 같소이다. 선을 굵게, 힘있게, 素畫로 쓰기를 애썼습니다. 이 까닭은 철저한 자연주의극은 우리의 오늘 내부의 생명 리듬과 같지 아니함의 위다. 그래서 이 3막 전편의 리듬의 굵은 선의 진행이 이렇게 대강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연출은 지금 조선의 무대에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첫째로 연출자, 둘째로 무대. 그러나 이것은 내 행진곡이요. 일후에 어떤 걸 쓰던지, 이곳에서 출발한 자연주의극, 상징극, 표현주의극 어는 것이 되든지간에 주의해 둘 것이요. 형의 시의 인용은 잘 되었던 못 되었던 용서하고 그대로 두시오. 나는 李相和의 <마돈나>를 안 보았지만 형의 이 시 한 편은 지금까지의 조선 新詩人의 작품 중에 걸작으로 알고 있으니, 그만큼 나는 힘쓰고 애써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용서하고 그대로 두십시오. 애원이외다. 애원이외다. 그대로 두시길 비오.

만일 원고료를 준다면 그것은 동경시 □□□□□□□□ 1-25 □□□□방 洪海星으로 보내 주시오. 그 까닭은 日後에 아시리다. 원고 받으시거든 곧 회답해 주시오. 총총히 이만 씁니다. 건강을 빕니다.90)

이 편지에서 김우진은 원고료는 홍해성에게 보내 주라고 부탁하고, 그 까닭은 일후에 알 것이라고 하고 있다. 오늘날 연구 논저들에서는 바로 이 대목을 들어 김우진이 이 시점에 이미 자살을 할 것임을 결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위 편지는 김우진이 자신의 야심작 <산돼지>를 마치고 난 계획과 포부를 담고 있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내부 생명의 리듬’을 굵은 선으로 그려낸 작품을 송부하면서 동봉한 이 편지의 그 어느

90) 1926. 8. 1. 편지, 『전집』 2, 243~244면.

부분에도 죽음의 김새는 없다. ‘일후에 어떤 것을 쓰던지’ <산돼지>로부터 출발하게 될 것이라는 창작 계획까지를 밝히고 있는 이 편지는, 그러므로 오히려 매우 들뜨고 희망에 찬 김우진의 기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곧 회답해’ 달라는 당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태도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할말을 ‘총총히’ 쓰고는 친구의 건강까지 비는 지극히 평범한 편지문투의 끝인사까지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듯 적어도 김우진은 1926년 8월 1일까지는 자살을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된다.<sup>91)</sup>

그렇다면 원고료가 있다면 홍해성에게 보내 주라고 한 것과 그 이유는 일후에 알 것이라고 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문맥으로만은 확실히 알 수 없다. 소박하게는 홍해성에게 신세진 데 대한 작은 성의일 수도 있고, 그를 기쁘게 해 줄 장난스러운 우정일 수도 있고, 보다 대국적으로는 그와 홍해성이 구상하였을 연극 사업의 일환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일후에 아시리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보다 깊은 뜻의 자신의 구상을 담고 있는 문맥으로 읽혀진다.<sup>92)</sup>

마찬가지로 김우진이 남긴 일기의 겉표지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나 이외 사람들의 욕이나 침이나 매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다만 분한 것은 만일의 ‘오해’ 뿐이다. 이 기록의 단편들이 이것만을 피해 주게 하는 데 참고가 되면!”이란 문구도 자살을 위한 심경의 표백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우선 그 기록 일자가 1926년 7월 31일자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살과는 거리

91) 조명희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김우진은 8월 5일까지 독일어 강습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1926. 7. 30. 편지), 어학 공부를 마치고 9월경 일본을 떠날 계획이었음(1926. 6. 29. 편지)을 알 수 있다. 그만큼 8월 3일 밤의 그의 德壽丸 승선은 뜻밖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사건 이후 각 신문에 보도된 그의 소지품에 여름옷이 다량 있었다 함은 적어도 그가 배에 오를 때까지는 자살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傍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2) 현실적으로 원고료는 잡지가 발간된 뒤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외 유학을 마음먹은 김우진으로서는 그 고료를 수령하기가 실제로 불가능하였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원고료를 조명희에게 대신 맡아 달라고 하지 않고 굳이 홍해성에게 보내라고 한 데에는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가 멀다. 오히려 이 문맥에서 주의해 볼 것은 ‘오해’라는 단어의 의미이다. 과연 사람들이 자신에 관하여 무엇을 오해할 것이라고 김우진은 분하게 생각하였을까. 물론 이것도 이 문맥만으로는 진실된 의미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그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방식과 선택이 ‘출가’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때의 ‘오해’는 그가 출가하게 된 동기에 대한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 이 일기가 1925년 5월 28일까지 기록된 것임에도 이 일기장의 표지의 문구가 1926년 7월 31일에 작성된 것임을 보아, 김우진이 염려한, 출가를 즈음한 ‘오해’의 가능성이 이 시점에 이르러 구체화된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 가능성은 갑작스런 윤심덕의 방문으로 확인되었는지도 모른다.

다음과 같은 신문 기사는 그 가능성을 다른 방향에서 탐지시켜 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 김수산과는 그런 사이면서도 어찌서 결혼하지 않았는가 하는 하나의 의문이 생기겠지만, 남자에게는 처자도 있고, 자신보다는 1년 아래이다. 최근에 이르러는 金이 그녀의 눈으로 화를 내고 입으로 웃는 지기 싫어하는 성질에 정나미가 떨어져서 스스로 마음 속으로부터 멀리하여 떠나간 것에, 그녀 자신도 단념하여 이태리행을 의도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金의 일을 잊을 수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만들어 만날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 즈음에 失戀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덧없음을 느껴서 銀실을 혼드는 듯한 소프라노로 아낌없는 생각을 담아 살아가도록 노력해 온 것이다. 그녀가 이번 大阪에 여행하기 전에 같은 취입의 연습이 있었지만, 거의 미친 것같이 노래를 계속 불러 그 애조를 듣고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최근 최고조에 달한 예술을 레코드에 의해 영원의 탄식으로 남기기를 용의주도하게 의도하여 정사를 도모한 것이지만 (…)<sup>93)</sup>

93) “(…)金水山とはああした仲でありながらどうして結婚しないのだらうと一つの謎となっていたが、男には妻子もあり、自分よりは一つ年下であり最近になり金は彼の女の目でいかり口で笑ふといふた勝氣なのに愛想を盡かし自分の胸から遠ざかつて行くのに一時は自分もあきらめがついで伊太利行きを目論だこともあつたが、それで

이 기사에서는 다른 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사 사건’ 무렵의 김우진과 윤심덕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다. 김우진이 윤심덕을 멀리하여 떠난 것, 그러나 윤심덕이 그를 못 잊어 일본까지 찾아간 사실, 그리고 8월 1일 슬픈 곡조로 ‘사의 찬미’를 노래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1926년 7월 말에서 8월 1일 사이에 그들 두 사람에게는 무엇인가의 ‘사건’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아마도 이 사건이 윤심덕으로 하여금 ‘정사’를 도모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우진이 자살할 계획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의 죽음은 다분히 윤심덕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럴 때 그의 죽음은 낭만적인 ‘정사’와는 거리가 먼 돌발적 사고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고 당시 그들이 목했던 선실의 풍경을 상기한다면 어떤 식이든 김우진이 윤심덕의 죽음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그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더 이상의 추론은 객관성을 검증받기가 힘들다. 다만, 한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하여 김우진이 지극히 침착한 청년이나 가끔 정신의 발작적 증후가 있어 때로는 자기의 정신을 거의 수습하지 못할 만큼 심하기도 하였<sup>94)</sup>는 『조선일보』의 기사(1926. 8. 5)와 함께 다음과 같은 그의 부친 김성규의 편지를 읽어 보기로 하자.

---

も金の事が忘れきれず、何かにつけて機會を作り逢瀬を作つていたのである。そのた  
びに失戀といへやう一種の儂なさを感じただ銀線をふるはすやうなソプラノに遺  
瀬ない思ひを寄せて生きやうとつとめて來たのである。彼女が今度大阪に旅立つ前の  
如き吹込みの演習があつたが殆ど狂氣の如く唄ひ續けその哀調を聞くもの涙を  
誘ふていたといはれ最近最高潮に達した藝術をレコードによつて久遠のなげきと  
殘し周到な情死をはかつたのであるが(…)"(『京城日報』, 1926. 8. 5.)

94) 이 점에서 이두현이 일찍이 그의 ‘자살’을 돌발적인 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김우진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사고사의 가능성도 전면 배제할 수 없다.

未及面談吾意하고 今欲以書而通하니 吾心之憂난 已無可論이어나와 汝之心도 亦應有不安者存矣리라 吾爲此書난 專爲舒汝心之不安而仍要汝身之健全也이니 汝則果無解我憂之意耶아 父所憂者난 但汝의 氣質脆弱과 神經過勞也라 茲將數語 하야 千萬叮囑

- 一 旅行時宿食勿用下等
- 二 長時日水行勿乘三等船
- 三 必要用費即須請求於我

汝之往地隱秘난 無乃慮汝父之招還耶아 此則果不知父心之甚者也로다 吾若欲 必爲招還 則自有許多方法이라. 然이나 斷然不爲하니 汝須勿慮하라 汝離家後 全家老幼皆安하고 至於家事난 自有汝二弟하니 勿以爲念也하라 吾作此書轉付하기 난 望汝朋友中 有信義人이 爲汝轉傳 而未知何日에 入於汝目也로다 見此即答함이 豈非汝解我憂之良心乎아 不能盡言 父手書

여기에는 자식의 기질의 취약함과 정신의 과로에 대한 염려와 함께, 건강을 위해 비용을 아끼지 말고 좋은 시설들을 이용하라는 아버지의 慈愛가 잘 드러나 있다. 이와 함께 집안은 잘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너를 찾아 집으로 불러 오려고 의도하지 않으니 소식이나 전하라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도 잘 나타나 있다. 이 편지는 ‘丙寅六月初八日’에 쓰여진 것으로, 5통을 작성하여 김우진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각각 친구들을 통해 전해 보낸 편지 중의 첫 번째라고 부기되어 있다.<sup>95)</sup> 그러니까 1926년 7월 17일에 보내진 것이고, 이 때까지 김우진의 집에서는 그에 대한 소식을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어디론가 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만 풍문으로 들었던 듯싶다.

이 편지는 김우진의 손에 들어갔지만 그는 답을 하지 않고 조명희에게 동봉 회송한 것으로 보인다.<sup>96)</sup> 이렇듯 김우진의 ‘출가’의 결심은 확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만큼 그의 정신적 고통은 배가되었을 것이다. 앞에서

95) 『草亭集』 卷之四, 三十九.

96) 1926년 7월 30일자로 조명희에게 보낸 편지의 후기에 ‘목포에서 온 편지 등사한 것 동봉 회송합니다’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짐작된다.

보았듯이 그는 본성이 착하고 효성스런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김우진은 충군보국하지 못한 그의 아버지에게 다시금 통한의 눈물을 남겨 주고 먼저 떠난 불효자가 되고 말았다. 김성규는 1931년 시체 없는 아들의 무덤을 만들고는 다음과 같이 墓表를 남겼다.<sup>97)</sup>

(…) 안동김씨 金祐鎭은 字는 元剛이요 號는 草耜<sup>98)</sup>라. 正三品 敦寧府都正 榑根의 曾孫이요, 正三品 延豐懸監 炳昱의 孫이요, 正三品 前江原道巡察使 草亭居士 星圭의 맏아들이다. 李朝 高宗 光武 元年 丁酉 9월 19일 卯時에 長城府 官舍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머리가 맑고 총명하여 혜안이 맑았다. 성품이 또 인자하고 효심이 고결하였다. 10살에 이미 배움에 매우 열심이었고, 19살 乙卯年에는 학습을 위해 바다로 떠나 일본의 웅본농교와 동경의 와세다대학 문과를 다 우등으로 다녔다. 문학사 학위를 얻어 세칭 세계의 대학자가 되어 乙丑年<sup>99)</sup>에 귀가하였다. 고난이 10여년 쌓여 신경 쇠약으로 결국 丙寅年 6월 26일 亥時에 죽었다. 經學院 講士 河東 鄭鳳鉉의 딸과 결혼하여 1남1녀를 두었다. 아들 芳漢은 이제 7살이요, 딸 辰浩는 13살이다. 본래 자식이 먼저 죽는 법은 없건만, 하늘이 그 아버가 무덕한데도 享受함이 지나쳐서, 그것을 미워하고 벌을 내려 이 늙은이에게 아픈 독을 끼치게 되었다. 그 아버 귀신에게 울부짖지만 끝내 속죄할 수 없었다. (…)<sup>100)</sup>

97) 이 점에서 김우진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고의적 은혜를 당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情死라는 죽음의 의미를 거부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98) 아마도 이 호는 그의 사후에 김성규가 지어 붙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99) 1925년을 뜻한다. 김우진의 일기에 의하면 그는 1924년 11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있었다. 이것이 잠깐의 귀가로서 완전한 귀향은 1925년에 행하여지는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다.

100) (…)  
安東後人金祐鎭 字元剛號草耜 正三品敦寧府都正 諱榑根之曾孫 正三品延豐懸監 炳昱之孫 正三品前行江原道巡察使 草亭居士星圭之長子 李朝高宗光武元年 丁酉九月十九日卯時 生於長城府官舍 少即清浪聰慧眼光澄 然性又仁孝高潔 甫十勢已力學甚篤 十九歲乙卯 負笈出洋 習業於日本之熊本農校 東京早稻田大學文科 皆參優等 得文學士位 世稱世界之大學者 乙丑歸家 積苦十有餘年 以致神經衰弱 竟於丙寅六月二十六日亥時歿 娶河洞鄭氏經學院講士鳳鉉女 生一南一女 男芳漢今七歲 女辰浩十三歲 兒本無夭死法 天以其父無德而享受過當 憎之而降之罰 貽此白首之痛毒 其父號呼鬼神 終莫能贖 (…)

결국 김우진은 죽었지만, 김우진의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情死’로 곧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는 집안의 명예 때문일수도 있지만, 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로 보아도 김우진의 죽음은 ‘情死’와는 거리가 멀다. 사고사일 수도 있고 자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살이더라도 그의 죽음은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정신 쇠약에서 돌발적으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감추어진 비밀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을 수밖에 없다.

## 6. 결론 및 남는 문제

그 동안 김우진에 대한 논의는 『김우진 전집』에 전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기대어 그의 선구자적 의의를 반복하여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확실한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한 탐구조차 없이 막연히 아버지와의 갈등을 전제로 하여 모든 논의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 관계로만 파악하는 경향이 짙었다. 김우진 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윤심덕과의 정사 사건’이라고 하는 선정성에 기대어 그의 죽음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작품의 주제마저도 정밀한 분석 없이 죽음 혹은 자유 연애와 같은 항목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한계를 보여 준다. 이에 따라 그가 실제로 발표한 작품보다는 주로 자전적 성격이 강한 <난파>나 마음의 문제를 취급한 <이영녀> 등의 유고에 더욱 비중을 두어, 그 형식이나 주제의 선구성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논의의 초점이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유고를 중심으로 하여 한 작가의 선구성을 논의하는 것은 자칫 논의의 핵심을 이탈하기가 쉽다. 즉, 유고는 어디까지나 그 작가 전체 작품 활동의 보조적 자료가 되어야 하며, 이 때에도 특히 그 작가의 정확한 문학적 전기의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우진의 문학 활동에 대한 고찰은 당시의 지면에 발표된 약간의 비평문

과 2편의 희곡으로부터 촉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그 동안의 대동소이한 김우진 연구의 관점을 반성하고, 보다 확실한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한 작가의 의식 세계와 작품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김우진의 아버지인 김성규의 문집 『草亭集』에 나타난 그의 가족 관계에 우선 주목하였다. 그 결과 김우진의 가계가 보다 확실히 밝혀졌으며 그들 부자간의 관계도 김우진의 '아비 초극'이라는 긍정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김우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모성 결핍의 모티프가 김우진 작품에 커다란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희곡 <산돼지>는 이러한 김우진의 의식 세계를 해명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각 희곡 작품들의 장단점을 취합하여 그 위상을 자리매김할 필요성을 현재로는 느끼지 못하였고, 그것을 위한 지면도 충분하지 않아 생략하였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극작가의 선구성이라는 것이, 그 작가의 창작 행위의 내면 풍경과 동시대의 연극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탐구 없이 반복하여 강조되다 보면, 자칫 지레 다른 결론을 회피하는 폐쇄적 울타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입관을 배제하고 한 작가의 문학적 전기를 객관적으로 재구해 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김우진의 죽음의 의미는 재인식해 볼 필요성이 있는 바, 다시 한번 당시의 객관적 자료와 김우진의 편지를 검토해 본 결과, 그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낭만적인 정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의 죽음은 오히려 윤심덕에 의해 유도된 사고사이거나,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정신적 억압에서 그 계기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 본고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제 김우진론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그의 전기적 사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의 검토를 기초로 하여, 창작 희곡과 비평의 위상을 다시 정립시켜야 한다. 특수하게는 김우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심리적 억압의 정체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 아니면 자살의 심리학과 1920

년대 연극 환경과의 관계와 같은 다양한 논의가 제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럴 때 한국연극의 발전에 기여한 김우진의 공헌이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희곡과 연극에 대한 연구의 수준이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본격적인 김우진 희곡론을 위한 예비적 고찰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 본 논문의 작성을 위하여 자료 해석에 도움을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울산대학교 국문학과 성범중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